

Weekly

공감

2011.08.24 No.123
gonggam.korea.kr



더 빨리! 더 높이! 세계의 시선이 대구로 P17~43

‘4대강살리기’ 승촌보 수문 시운전 “영산강이 달라졌어요” P6~7

‘지우히메’ 아역으로 데뷔했던 박신혜... 이전 ‘신혜히메’ P46~47



“꽂~” 채워 주세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짜릿한 감동의 축제로 초대합니다.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성공에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킨
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승리의 함성-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곳, 대구 달구벌에서
힘찬 응원과 뜨거운 성원을 펼쳐 주십시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8.27(토)~9.4(일) 9일간
- 47개 종목 212개국 6,000여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

즐거운 대구로 오이소!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 대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이 차지 않는다면 대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중석만 가득 메워주신다면 우리 대구는 반드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대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 지상 최고의 건각들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27일부터 대구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를 훌륭하게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고, 대구는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대구 4년 전인 2007년 3월 케냐 몸바사에서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모스크바, 바르셀로나 등 세계 유수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이 쾌거는 '몸바사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은 트랙, 음향, 전광판 등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갖춘 선수촌을 건립해서 각국 선수단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국내 최초로 도심 내를 순환하며 뛰는 '루프 코스'를 채택, 모든 선수가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손보고 가꿨습니다. 대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숙박, 관광 등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습니다. 내외국인들이 대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대구한방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사격·승마체험 등 5색 관광 상품도 마련했습니다.

온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귀한 선수와 관람객들을 미소와 친절로 맞이할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 빈틈없는 운영은 대회 성공의 요제입니다. 이번 대구대회는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역대 최고로 정성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대

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기 현장이 뜨거운 열기로 달궈지고 함성으로 뒤덮일 때, 선수들이 아드레날린을 쏟아내며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힘과 대구의 저력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88올림픽, 2002월드컵에 이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킬 또 한 번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람이 바로 이 좋은 기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중석만 가득 메워주신다면 우리 대구는 반드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대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문화와 환경, 첨단 IT기술이 어우러지는 인류의 축제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구에서 펼쳐지는, 맨몸으로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드라마에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G



17

기획 특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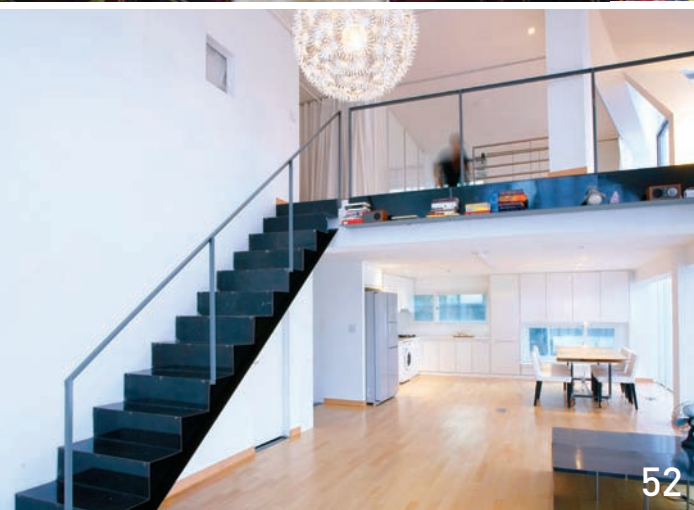
오이소! 보이소! 대구세계육상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사나이, 우아하게 하늘로 치솟는 미녀새, 장애를 딛고 트랙을 가르는 기적의 남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세계 2백여개국에서 2천4백여 명의 건각들이 뜨거운 각축을 벌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입국하면서 대구는 이미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승리, 대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01 Reader & Leader | 즐거운 대구로 오이소!
- 18 대구세계육상선수권 | 세계육상, 9일간 달구벌에 취한다
- 20 대구에 뜬 별들 | “내가 제일 잘 나가!”… 달구벌 스타워즈
- 24 한국 미녀 3총사 | 한국신기록을 넘어 세계의 벽 두드린다
- 26 경기 100배 즐기기 | 본부석 좌우가 명당… 리듬 맞춰 응원
- 28 마라톤 재미있게 보기 | 코스모스 피어있는… 대구순환 42.195km
- 30 지금 트레이닝 캠프에선 | 컨디션을 올려라… 막판 담금질 ‘후끈’
- 32 아하! 그렇군요 | 한여름에 대회? 치밀한 흥행전략의 산물
- 33 장외열기도 후끈 | 메인프레스센터 오픈… 취재경쟁 스타트
- 34 대회 일정 | 더 빨리, 더 높게, 더 멀리…
- 38 대구 주요 관광지 | 팔공산 올레길·골목투어 “대구로 오이소”
- 40 대구의 맛 | 대구에도 맛집?… “당연히 있지요”
- 41 대구 주변 볼거리 | 경주문화엑스포 “웃다 보니 하루해가…”
- 42 선배들의 조언과 관전법 | 황영조 “마라톤코스 쉽지만 알보진 마라”



표지 이야기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오는 8월 27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한민국 대구에서 열린다. 전 세계 2백여개국에서 온 선수들은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자신이 갈고닦은 기량을 최대한 선보인다. 9일간 달구벌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열광들이다.



- 04 공감라운지 | 세종시 시설 명칭을 붙여주세요
- 06 4대강살리기 | 승촌보 시운전 “영산강이 달라졌어요”
- 08 이슈 |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따져 부과한다
- 10 포커스 | 공공주택 입주 앞당겨 전·월세 물량 늘린다
- 12 핫이슈 | ‘공생발전’으로 국정방향 업그레이드

- 44 반갑습니다 |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입상 피아니스트 손열음
“피아노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 46 한류스타 ⑤ 박신혜 | ‘지우하메’ 아역으로 데뷔… 아젠 ‘신혜하메’
- 48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을 해야 성공하죠”
- 50 공감코리아 정책기자의 세상읽기 | “2년 뒤 세계육상대회 금메달은 내것”
- 52 건축 | 디자인을 입힌 다세대주택의 ‘변신’
- 54 공감여행 | 태안 안면도
늦여름이 반가운 해수욕장… 박속낙지탕·꽃게장도 손짓
- 58 건강생활 | 근육·경락·관절 풀어 찌뿌듯한 몸에 활력을
- 59 디딤튼 | 글로벌 에티켓 ⑤ 얼음 ‘땡’
- 60 이 한권의 책 | <춘추전국의 영웅들> 리더십을 다시 생각한다
- 61 공감카툰 | 쌍무지개가 준 행운
- 62 문화공감 | 육상도 보고, 전시도 보고… 대구에 볼거리 많네~
- 64 영화속 영웅 이야기 | 전쟁의 기억 되살려… 만세! 스트레스 해소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1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자난호를 읽고 】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길

“122호 학력차별을 딛고 최고가 된 ‘최병렬 이마트 대표’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능력과 자질보다는 학벌과 스펙을 중요시하는 풍토 속에서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동안 한 분야에 전념하여 지금의 위치에 오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자신감이 생깁니다.”

김준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강석창, 당신은 진정한 꽃을 든 남자

“122호 기획특집 ‘강석창 소망화장품 대표-모든 배움을 독학으로… 성공을 든 남자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지병 때문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교와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종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된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독학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모습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감동까지 더했습니다. 무궁한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우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신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라나는 세대에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122호 ‘젊은이들 순국선열 뜻 퇴색 안타깝다’를 읽고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멸사봉공(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씀)의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찌들어, 과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사나 열사들이 나오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애국심을 기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독도문제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장삼동 (부산시 북구 화명동)

4대강, 폭우에도 끄떡없이 다행

“121호 4대강살리기-‘물폭탄에도 발 뻗고 잤어요… 40년 만 이효’ 기사에 공감이 갑니다. 올 여름 비가 많이 와서 4대강

건설 현장에 수재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4대강 준설 공사의 효과로 강 주변에 홍수 피해가 없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단순히 홍수 피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4대강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수영 (광주시 북구 운암1동)

대구세계육상대회 가슴이 뻥뻥

“121호에 실린 대구세계육상대회 기사들을 보고 벌써부터 가슴이 뻥뻥. 세계적인 육상선수들의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2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는데, 아직 세계선수들과 격차는 나지만 자신의 기록이나 우리나라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데 온 힘을 다해 뛰으면 합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육상에 관심을 갖고 재능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 더 이상 육상이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상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복고 르네상스’ 오길 기대해

“121호 공감코리아 정책기자의 세상읽기-‘이들을 보면 옛 추억·옛 사랑 생각에’ 기사를 읽고 추억이 담긴 그 음악들을 다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흥분에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 ‘복고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찾으려 하는 우리 세대의 욕망을 반영하고 분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되어준 것 같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복고가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지평을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최종훈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바로잡습니다

- 7월 13일자 117호 50쪽 기사 전문의 ‘대학사회봉사단협의회’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로, 본문의 ‘김용인’은 ‘김용민’으로 바로잡습니다.
- 8월 17일자 122호 19쪽 오른쪽 사진 설명은 ‘대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통역요원들’로, 50쪽 기사 전문의 ‘카이스트’는 ‘포스텍’으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에서 만나보세요!

알림

□ 세종시 시설 명칭을 붙여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시설 명칭과 관련해 국민선호도 조사 및 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와 공주 지역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고 이번 공모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되는 행정구역, 도로 등 각종 시설 명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설 명칭은 최대한 순우리말을 활용하고 창의·과학·역사·미래가치성 등을 고려해 세종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공모 기간 | 9월 10일까지

참가 자격 | 재·외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재외동포 포함)

응모 대상 | 행정구역, 마을, 도로, 공원, 학교 등 5개 분야

응모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happycity2030.or.kr)에 제시된 시설 명칭 중 가장 선호하는 명칭을 선택하고 제시된 안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따라 명칭을 기재해 제출

시상 내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상 외 상금 수여, 시설 명칭 선호도 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 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 041-860-9202

□ 로비콘서트 연주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음악협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1 제29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를 함께 만들어 갈 로비콘서트 연주단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로비콘서트'는 음악제 행사기간 동안 메인공연 시작 전 예술의전당 음악당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 | 9월 1일까지

모집 부문 | ① 로비콘서트 연주단체—아마추어 연주자로 결성된 연주단체로 국적, 나이, 인원수, 편성(악기), 장르 등에 제한 없음

• 신청 부문은 합창단, 중창단,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② 자원봉사자—음악과 공연을 사랑하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 남녀 누구나

• 모집 분야는 행사진행, 영어통역, 사진촬영 등

지원 방법 | 대한민국국제음악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infokimf@mak.or.kr) 접수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사무국 www.kimf.or.kr ☎ 02-744-8060~1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30일 오전까지 i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 고기와 채소를 넣고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 한국식 중화요리는? 곱빼기로도 먹죠.
- 아기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 챔피언.
- 고온으로 열처리한 금속재료를 물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일.
- 4대강사업에서 처음 완성되어 수문 시운전에 성공한 영산강 6공구의 보, 이 보가 위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동(洞) 이름에서 따왔죠.

세로

- 육상 강국. "총알 탄 새나아" 우사인 볼트의 나라.
- "이명박 대통령은 OO 안정과 주거비 경감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 맘마미아, 댄싱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죠.
- 말겨둔 돈.
- 채무 불이행 때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부동산을 OO했다."

〈Weekly 공감〉 121호(8월 1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해운대 4 차용물 6 아이돌 7 철인 9 선풍기

세로 1 장대높이뛰기 2 벤치 3 해무 5 용수철 8 인선

〈Weekly 공감〉 121호 '공감 퍼즐' 당첨자

남아경 · 전남 여수시 중화동

박지혜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방지원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오정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지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4대강살리기



나주평야의 쌀알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영산강 승촌보 전경. 공정의 99퍼센트를 마친 승촌보는 8월 11일 개문식을 한 뒤 10월의 정상운영을 앞두고 시험 운영 중이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승촌보 인근 영산강변에 조성된 상선누리공원의 관찰데크. 수변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승촌보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촌보 시운전 “영산강 총 길이 5백2미터로 상시 5미터 수심 유지… 보 상류

영산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승촌보 수문 시운전 행사가 열렸다. 스르키는 하천토를 준설해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고자 2009년 6월 4대강살리디어 함찬 물줄기를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흰 물줄기 사이에 서 있는 5개의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쌀알 같다. 나주평야의 쌀알을 형상화해 ‘생명의 씨알’이란 콘셉트로 디자인된 영산강 승촌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으로는 광주시 서구 승촌동, 서쪽으로는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사이에 걸쳐 있는 승촌보는 지난 8월 11일 4대강 사업 현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문식을 갖고 수문 시운전 행사가 열렸다.

승촌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문제점을 찾고 정상가동을 위한 노하우를 쌓기 위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정상가동 때까지 시운전을 계속하게 된다.

8월 11일은 승촌보 건설을 포함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정한 ‘영산강살리기사업 완공(9월30



이 달라졌어요”

500밀리 집중호우도 홍수조절

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4대강의 생명력을 되찾게 해 주고, ‘수맥경화’를 일으키는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물그릇 역할을 하는 보가 드

일) D-50’이기도 했다.

총 길이 5백2미터의 승촌보는 고정보 구간 3백52미터, 가동보 구간 1백60미터로 이뤄져 있는 ‘다기능보’다. 평소에는 5미터의 수심을 유지해 일년 내내 물이 풍부한 강으로 가꾸고, 우기에는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첫 개문식… 10월 중 정상가동

‘저대한 쌀’ 기동 5개 사이에 만들어진 가동보 4개(50미터 수문 2개, 30미터 수문 2개)의 수문은 모두 개방할 경우 1초에 2천6백여 톤의 물을 방류할 수 있다. 또 수문을 모두 닫을 경우 최대 9천7백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담양, 장성지역에 하루 2백2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에도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승촌보 하류를 준설한 것까지 감안하면 보 상류에 5백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홍수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다.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정상운행을 하기 전까지 시운전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승촌보와 더불어 죽산보까지 담수가 시작되면 영산강에 물이 가득 차 수상스포츠가 가능해지고, 자전거길, 산책로 등도 갖춰져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촌보 위를 지나는 공도교는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다. 공도교와 연결되어 소수력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보 하류에서 보 상류쪽으로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는 물길인 ‘풀형 아이스하버식 어도’, 수변공원과 산책로 등 자연친화 시설들이 함께 조성돼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 등 4대강에 들어서 있는 총 16개 다기능보는 현재 98퍼센트의 공정이 추진돼 소수력발전·공도교 등의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심명필 본부장은 “16개의 다기능보는 물 확보, 홍수조절 등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따져 부과한다

근로소득에 임대·금융소득도 합산... 지역·직장체계 단계적 단일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소득과 재산 등 종합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과 직장이라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모씨와 김모씨는 직장 동료다. 연봉도 1천8백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같은 액수를 낸다. 근로소득의 5.64퍼센트인 전체 보험료 가운데 개인 부담인 2.82퍼센트인 월 4만2천원을 납부하고 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김씨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이자, 주택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씨가 이 대목에 불만이 많다.

하씨는 월 4천4백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고액 자산가인데 자신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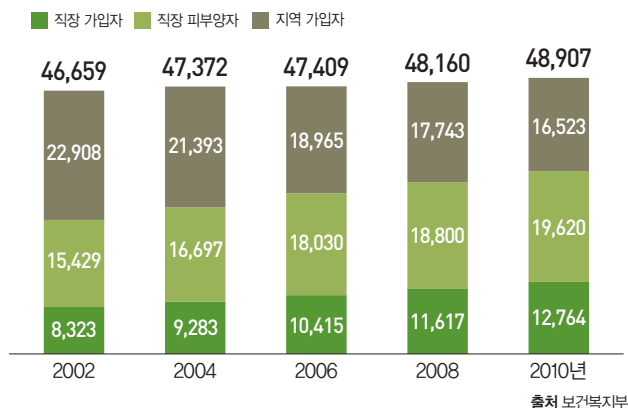
료는 전체 소득 대비 2.82퍼센트지만 하씨는 0.09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은퇴자 등 취약계층 보험료는 단계적 축소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에 대한 실제 부담능력과 부과되는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총소득은 68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70퍼센트 수준인 47조7천억원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

건강보험가입자 추이 (단위 : 천명)



지 않고 있다. 일부 고소득자는 위장취업해 보험료를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대상자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형평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은퇴자,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질소득에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자산도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98년 도입 당시 전체 27퍼센트에서 지난해 5월 40퍼센트로 붙어났다. 그 결과 은퇴 후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48퍼센트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이 77년 5백인 이상에서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결과다.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3천2백38만4천명인 직장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1천9백62만명에 이른다. 가입자 1명이 1.54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대만 0.72명, 독일 0.3~0.7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부양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피부양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부모, 형제, 자매는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

복지부, 약가산정 방식 개편

약값 내려 연 2조1천억원 절약한다

약값이 대폭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약가산정 방식을 개편해 약값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약값은 계단식으로 정해진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건강보험에 먼저 등록하는 순으로 약값이 높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등록전이 치열하다. 정부는 계단식을 폐지하고 성분이 같은 약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해 소모적인 등록경쟁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허만료 전 가격의 68~80퍼센트인 복제약(제네릭)의 상한가격은 53.5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한가격을 59.5~70퍼센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약품 사용을 줄이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기존 의원에서 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백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병원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면 상당한 액수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약품비 절감에 나선 것은 의료비 가운데 약품비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료비 가운데 약품비는 30퍼센트 수준으로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약품 가격도 비싸다. 구매력 기준으로 16개 비교대상국가 중 1위다. 약 사용량도 2배 이상 많다. 약이 남용되고 있으며 약값은 과도하다는 얘기가.

높은 약품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5조8천억원의 적자가 전망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약가 인하는 건강보험 재정 개선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문에서 1조5천억원, 국민부담액 6천억원이 절감된다.

제는 피부양자 요건을 종합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금융소득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현재 종합소득이 얼마가 됐든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부담능력이 아닌 자녀와 형제, 자매의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월 3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자녀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해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될 소득수준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관리처분총회 통과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 삼성물산(주)건설부문



강남과 분당 등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구 대치동의 청실아파트.

공공주택 입주 앞당겨 전·월세 물량 늘린다

가을 이사철 시장안정대책 발표... 수도권, 한 채 임대사업자도 세제 혜택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7월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 지난 7월 강동구 전세가격은 1.9퍼센트 올랐다. 강남구(1.8퍼센트), 노원구(1.4퍼센트), 분당(1.4퍼센트) 등 학군 선호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8.0퍼센트로 지난해 전체 상승률인 7.1퍼센트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방광역시는 같은 기간 9.7퍼센트나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20~30평형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전·월세 시장의 상승은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전

세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18일 가을철 전·월세 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급물량 확대,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시장 점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 여유자금에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투자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증가하는 전·월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 공급량을 확대한다. 먼저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조기화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9만7천 호 가운데 7월까지 5만7천 호가 이미 입주했고 9~10월에 2만2천 호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다세대주택도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민간에서 신축한 2만 호의 다세대주택을 LH공사가 매입해 임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1천 호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마련한다.

도시형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도시형 주택 건설에 연 2퍼센트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제곱미터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확대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수도권 3호, 지방 1호에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1호로 완화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1호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세물량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연 5.2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인하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 수요는 최대한 분산시킨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조정한다. 이주 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대책도 내놓았다. 미분양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에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 지원과 시장점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실시한다. 현재 3천만원인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퍼센트를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전·월세 거래정보도 늘린다. 아파트만 공개하던 것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로 평균 임대료 상승률을 산정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전·월세 안정화대책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매입계획 공고 등	9월~	국토부
대학생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및 노후하숙 개량 지원	전세임대 공급 보증금자리법 개정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	소득·중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	10월, 12월	재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및 세제 지원	임대주택법 및 지특법 개정	12월	국토부·재정부 행안부
전문임대주택 관리 회사 제도 도입	임대주택법 개정	12월	국토부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주택구입 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도정법, 시도조례 개정	11월	국토부·지자체
미분양집중지역 교통여건 개선	광역급행 버스노선 확충	하반기	국토부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	12월	재정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9월	국토부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전·월세 실거래 DB 확충 및 공개 확대 등	시스템 개선 및 홈페이지 개편 등	하반기	국토부·대법원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 단속 강화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련 지침 마련 등	8월~	국토부·지자체 등

‘공생발전’으로 국정방향 업그레이드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제시… 경제생태계 바로잡을 후속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고교 졸업자 취업기회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발전, 자영업 및 골목상권 보호, 물가안정,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노력 등을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서민금융 활성화 중간점검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마친 후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해 미소금융 수혜자인 한 호떡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며 도넛을 사먹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전의 양(量)’ 못지않게 ‘발전의 질(質)’을 강조하는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공정사회’(2010년)의 뒤를 잇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화두가 등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주요국 재정위기에 대해 언급한 후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

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변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진화된 모델 요구

이어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변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경축사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박형준 사회특보는 이에 대해 “서로가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계(ecosystemic) 개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이론화되고 있는데, 이를 발전개념에 접목시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생태계’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말로 바꾸느냐를 놓고 토론을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의 집중,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매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40퍼센트를 넘어섰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6백98조7천3백89억원으로 전체의 52.2퍼센트에 달했다. 30대 그룹 계열사 수는 2005년 말 7백2개에서 작년 말에는 1천69개로 52.3퍼센트나 증가했다.

대기업 이익률은 2007년 7.9퍼센트에서 작년에는 8.4퍼센트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 이익률은 3.8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낮아졌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분배됐는지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06년 61.3퍼센트에서 4년 연속 하락해 작년에는 59.2퍼센트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8.7퍼센트에 달한다.

동반성장 통한 경제력 집중·양극화 해소에 초점

‘공생발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나가겠다.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것이 공기업·금융기관·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영업 및 골목상권 보호, 물가안정,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도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 각 부처는 ‘공생발전’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16일 특성화고교 졸업생의 기능직 채용 방안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는 ‘공생발전’ 후속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16일 올 하반기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국립대, 과학관, 국립특수학교 등에서 기능직 신규채용 인력

○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공생발전	1. 재정건전성 유지 :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2.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복지 포괄리즘에 적극 대응 - 고졸 채용 확산, 선취업 후진학 기회 확대 등 추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4. 자영업·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한 내수활성화
	5.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물가 안정
	6. 재해대비 기준 대폭 강화(2012년 예산 반영)
	7.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환경 조성(동반성장)
통일정책	8. 남·북 상호 신뢰관계 구축
	9.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대외정책	10.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의 50퍼센트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과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고졸자를 10퍼센트 이상 선발하는 채용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소속기관, 국립학교,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채용할 신규인력 2천1백87명 중 18퍼센트인 3백88명을 고졸자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8월 18일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어 중산층까지 세제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고졸 취업 확대 등 발빠른 대응

주택자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현행 5천만원이던 전세 대출보증금 한도를 6천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한편 보건 의료미래위원회는 8월 17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G**

글·배진영 기자

‘공생발전’은 함께 잘사는 ‘숲의 법칙’

복지 포퓰리즘·무한경쟁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문제를 모두 극복하기 위한 다짐

□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란 무엇인가? 또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김두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공생발전의 개념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

첫째, ‘공생발전’은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체제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복지문제를 모두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발전엔 기여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과 빈부 격차의 확대, 고용 없는 성장, 경제위기의 반복 같은 상황을 가져왔다. 때문에 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의 강조는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다시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공생발전’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지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가 없다”고 강조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면서도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둘째, ‘공생발전’은 정글에서 숲을 지향한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숲의 법칙’이라는 것은 공생·공존하면서 생태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숲의 가치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공생발전’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한다. 이는 이념대립, 학력·지역·세대·문화·인종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같은 구시대적 편견을 벗어나고 개방적·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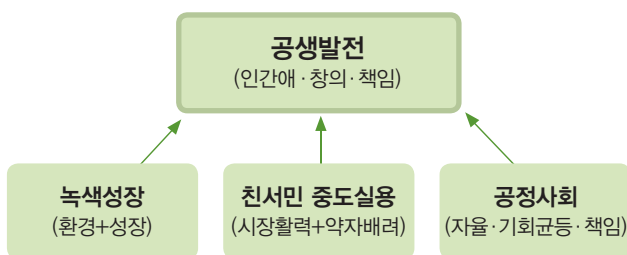
그렇다면 ‘공생발전’과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두우 홍보수석은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공생발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생태계와 생존 주체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하듯이 자연과 인간,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녹색성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친서민 중도실용’에 대해서는 “활기찬 시장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시장의 그늘을 걷자는 그런 ‘공생발전’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뒤쳐진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 친서민 중도실용의 노선이라는 것이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어서 “지난해 등장한 ‘공정사회’가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또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사회라면 개인의 창의성과 시장의 공정성, 사회적 배려가 함께하는 것이 ‘공생발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공생발전’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

글·배진영 기자



○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의 진화·확장

녹색성장(2008)	글로벌 어젠다 제시	환경+성장
친서민 중도실용(2009)	경제위기 극복 서민정책	배려+실용
공정사회(2010)	경제위기 이후 발전기반 조성	불공정 혁파+기회균등
공생발전(2011)	친서민·공정사회·녹색성장 기반 위에 '시장경제 진화'	복지국가 실패 교훈, 신자유주의 한계 극복 → '지속발전 가능한 시장생태계 조성' *재정건전성+맞춤복지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약값을 평균 17% 인하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총 2조 1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만성 복용하는 A씨는
약값의 본인부담액이 앞으로 연간 약 3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간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건강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합니다.

1.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춥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될 예정입니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의료계와 국민의 올바른 약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 급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 제약 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됩니다.
지상파의 디지털 TV방송 전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집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선명하게 즐기세요.

함께해요! 지상파 디지털 전환!

스마트폰으로 설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Digital TV설치가이드



Analog TV설치가이드

디지털 방송 홍보대사
아나운서 황수경

디지털 TV에 디지털 방송용
안테나를 연결하거나!



실내 안테나

디지털 TV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와
디지털방송용 안테나를 달거나!



디지털 컨버터

아날로그 TV

실내 안테나

기획특집

세계의 별들 총집합 달구벌이 뜨거워진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사나이, 우아하게 하늘로 치솟는 미녀새, 장애를 딛고 트랙을 가르는 기적의 남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세계 2백여개국에서 2천4백여 명의 건각들이 뜨거운 각축을 벌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입국하면서 대구는 이미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승리, 대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18 세계육상, 달구벌에 취한다
- 20 대구에 뜬 별들
- 24 한국의 미녀 3총사
- 26 경기 100배 즐기기
- 28 마라톤 재미있게 보기
- 30 지금 트레이닝캠프에선
- 32 아해! 그렇군요
- 33 장외열기도 후끈
- 34 대회 일정
- 38 대구 주요 관광지
- 40 대구의 맛
- 41 대구 주변 볼거리
- 42 선배들의 조언과 관전법



연인원 80억명이 시청하는 올해의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27일 개막, 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국제육상 여자 100미터허들 경기에서 선수들이 역주하는 모습.

세계육상, 9일간 달구벌에 취한다

전세계 80억명이 TV중계 시청... 뜨거운 응원 통해 '우리의 잔치'로

그들이 온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고, 잘 던지고, 잘 뛰는 그들이 온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 27일 개막한다. 9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될 세계의 육상 스타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표선수들이 지금 여러분을 부른다.

○ 드디어 개막이다. 역대 최대 참가국,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 27일 개막한다.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육상 대제전에서는 세계 2백여개국의 선수와 임원 3천5백50명이 9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관하는 이번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우리나라는 남녀 선수 60명(남자 33, 여자 27명)과 코치·임원 등 89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첫 10개 종목, 10위권 내 진입이란 '10-10'의 희망을 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고 손기정 선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의 황영조 선수가 따낸 두 개의 마라톤 금메달을 제외하면 세계 육상계의 양대 산맥인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경험 이 없는 한국 육상은 처음으로 안방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육상의 부흥을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의 첫 경기는 대회 개막일 오전 9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발하는 여자 마라톤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남자 10종경기의 100미터 레이스가 트랙경기의 스타트를 끊으며, 필드에서는 여자 원반던지기 예선이 필드 종목으로 첫선을 보인다.

10종목 10위권 진입 '10-10' 희망을 쏜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에 열린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인 9월 4일 오전 9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발하는 남자 마라톤 경기를 마지막으로 총 47개 종목(남자 24·여자 23)의 인간 육체의 향연이 막을 내린다. 이날 저녁 9시10분부터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폐회식에서는 차기 개최도시인 모스크바에 대회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대구육상대회는 역대 최대 참가국(이전 최대는 1999년 세비

야대회의 2백개국), 그리고 최대 참가 규모란 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먼저 이번 대구육상대회 개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두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7번째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하계올림픽·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대구는 지난 2007년 3월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회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번과 경쟁 끝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구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유치에 성공하게 되자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을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에서 5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사상최대 2백6개국 총3천5백50명 9일간 열전

지난해부터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레이스 F1 코리아 그랑프리까지 꼽는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이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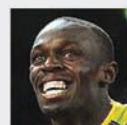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단지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번 대구육상대회는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와 함께 '대구'란 도시 이름을 지구촌에 강력히 부각시켜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의 경제활동은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지역산업의 수출증대, 해외투자 유치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높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인지도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적 이미지는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감소했다. 또 한일월드컵 개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5조3천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1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IAAF 공식 방송 배급권자인 스웨덴 방송사 IBC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15개국 이상 1억5천6백65만 가구에 중계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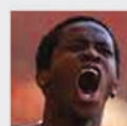
대구에 오는 세계기록 보유자들 이름(국가)/종목/기록(작성일)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남 100m 9초58(2009년 8월)
남 200m 19초19(2009년 8월)



티루네시 디바바(에티오피아)
女 5000m 14분11초15(2008년 6월)



다이론 로블레스(쿠바)
남 110m 허들 12초87(2008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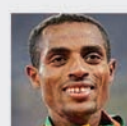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女 장대높이뛰기 5m06(200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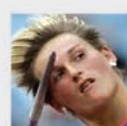
데이비드 레쿠타 루디사(케냐)
남 800m 1분41초01(2010년 8월)



베티 하이들러(독일)
女 해머던지기 79m42(2011년 5월)



케네니사 베켈레(에티오피아)
남 1만m 26분17초53(2005년 8월)



바보라 스포타코바(체코)
女 창던지기 72m28(2008년 9월)



블라디미르 카나이킨(러시아)
남 20km 경보 1시간17분16초(2007년 9월)



베라 소코로바(러시아)
女 20km 경보 1시간25분8초(2011년 2월)

대회는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일종의 '맛보기 경기'로, 데이비드 올리버(미국·남자 110미터허들), 카멜리타 지터(미국·여자 100미터) 등 육상스타들이 출전하긴 했지만 16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을 뿐이었다. 이번 대구세계육상대회는 연인원 80억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5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 달성

이제 맛보기가 아니라 본경기가 시작된다. 세계 육상계의 최고 스타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8월 16일 입국, 경산육상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다른 육상스타들도 속속 입국해 곳곳의 훈련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회 성공을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6천여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나섰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1만7천여 명의 시민서포터스도 열린 응원을 준비 중이다. 우리도 잠시 대구에서 펼쳐지는 세계육상대회의 열기에 취해 보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그랬듯 결국 '남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기 때문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남자 100미터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



남자 창던지기 안드레아스 토르킬드센 (노르웨이)

지존의 명성 확인이나... 새로운 황제 등극이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달구벌 스타워즈

‘별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27일 개막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은 초일류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사인 볼트는 과연 100미터와 200미터에서 ‘지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2년 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빼앗긴 여자장대높이뛰기의 엘레나 이신바예바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밖에 새로 탄생할 황제들은 누가 있을까? 달구벌 명성부를 주도할 세계적인 선수들을 살펴본다.

남자 100미터 결승 | 8월 28일 오후 8:45

우사인 볼트의 우세 속에 파월 2인자 꼬리 떼나

‘번개’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는 왕벌로 꼽힌다. 그는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3관왕(100미터·200미터·400미터계주)에 오르며 세계육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볼트는 2009베를린세계선수권에서도 세계기록 행진을 벌이며 금 3개를 따냈다. 특히 100미터 결선에서 9초58로 골인, 2008베이징올림픽 때 본인이 세웠던 종전 세계기록(9초69)을 0.11초 앞당겼다.

볼트의 운동능력은 괴물급이다. 그가 달리면서 스텝을 한 번 밟을 때의 최대 압력은 1천 파운드(약 4백53킬로그램) 정도다. 이 힘을 손실 없이 추진력으로 바꾸려면 발가락 부분을 중심으로 트랙에 터치다운(touch down)하고 나서 빠르게 다리를 끌어올려 다음 터

치다운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린터가 볼트(1미터96)처럼 키가 크면 보폭이 넓어 다리를 번갈아 옮기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볼트는 단거리에 적합하게 발달시킨 특유의 근육 덕분에 터치다운이 강한 데다 발과 지면이 접촉하는 시간도 줄여 효율적인 레이스를 할 수 있다. 볼트의 한계가 인간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는 실력 못지않게 스타성도 갖추고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출발선에서 중계 카메라에 대고 장난을 치는 엉뚱함과 우승을 한 뒤 한바탕 춤판을 벌이는 유쾌함이 그의 인기비결이다. 지난해 역대 육상선수 최고액인 약 3천억원에 스포츠용품업체 푸마와 3년 재계약을 맺는 등 주가를 드높이고 있다.



여자 높이뛰기 블랑카 블라시치 (크로아티아)



남자 110미터허들 데이비드 올리버 (미국)

볼트의 팀 동료 아사파 파월(29)은 호시탐탐 볼트의 자리를 넘본다. 파월은 '서브텐(100미터를 10초 미만에 뛰는 것)'을 역대 최다인 71회 기록한 또 하나의 전설이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 명성에 걸맞지 않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 무대에서는 100미터 금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남자 창던지기 결승 | 9월 3일 오후 7:10

'노르웨이의 베컴' 토르킬드센 세계신 노크

안드레아스 토르킬드센(29)은 '노르웨이의 데이비드 베컴'이다. 자국에선 잉글랜드 출신의 축구영웅 베컴(LA 갤럭시) 부럽지 않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토르킬드센은 남자 창던지기 선수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올림픽·세계선수권·유럽선수권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남자 창던지기 선수라면 으레 우락부락한 체격에 무서운 표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토르킬드센은 한때 모델을 했을 정도로 외모가 수려해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된다.

토르킬드센은 11세 때 창던지기에 입문했다. 아버지 역시 창던지기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는 1970년대 여자 100미터 허들 노르웨이 챔피언이었다. 토르킬드센은 도움닫기에 필요한 스피드, 순발력과 상체 근력 모두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아버지 톰에게 창던지기를 배웠고, 이후 지금까지 아스문드 마르틴

센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다.

2011 시즌 세계랭킹 1, 2, 4위 기록을 모두 그가 가지고 있다. 개인 최고기록은 91미터59. 토르킬드센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대구 육상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 지난해 발생한 '노르웨이 테러'로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한다. 체코의 안 젤레즈니가 1996년 세운 이후 꺾이지 않는 세계기록(98미터48)에도 도전한다.

여자 높이뛰기 결승 | 9월 3일 오후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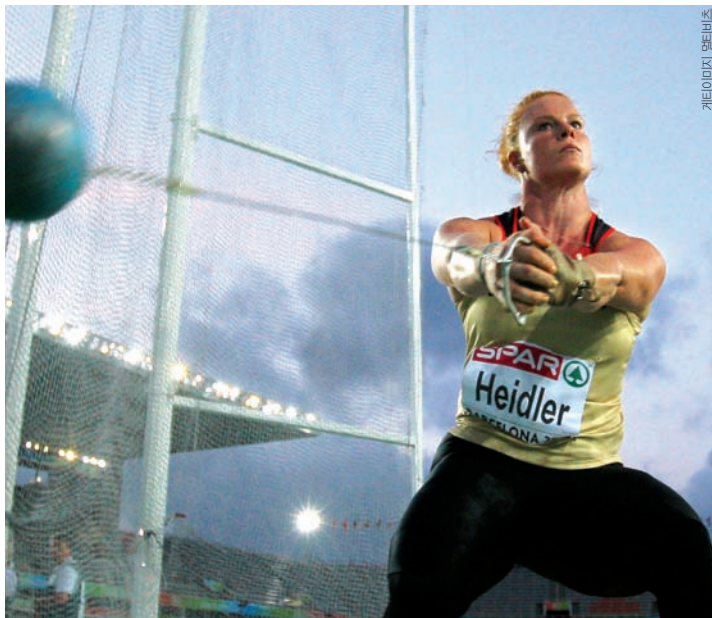
'필드의 쇼걸' 블라시치 아성에 스킨리나 도전

블랑카 블라시치(28·크로아티아)는 '필드의 쇼걸(showgirl)'이다. 마음에 드는 높이뛰기를 하고 나면 매트에서 골을 넣은 축구선수처럼 환호하고, 필드로 내려와 몸을 흔든다. 키가 1미터93인 블라시치는 지난해부터 굵 높이 10센티미터짜리 하이힐을 즐겨 신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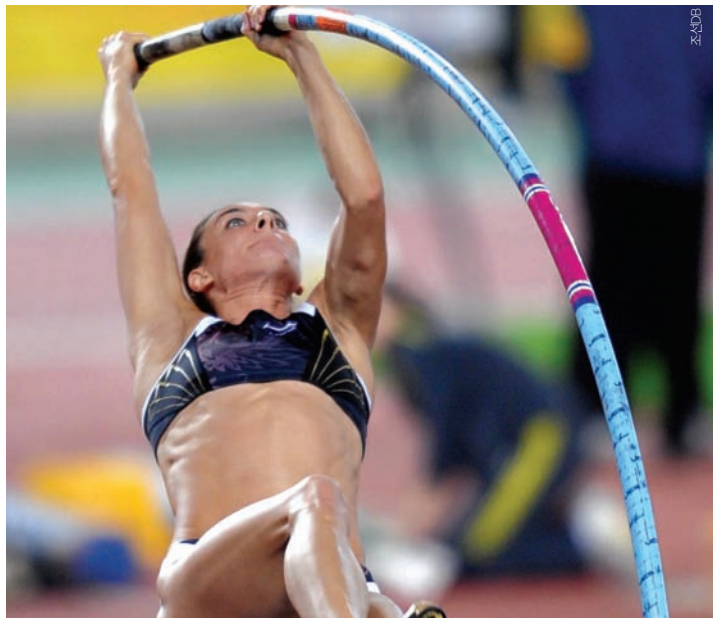
블라시치의 이름 블랑카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따왔다. 10종 경기 선수였던 아버지 조스코가 1983년 모로코 지중해 대회(지중해 인근 국가들의 스포츠 대회) 우승을 기념하려고 곧 태어날 딸을 위해 이런 이름을 지었다.

블라시치는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 3연속 우승을 노린다.

개인 최고기록이 2미터08이라 2센티미터만 더 뛰면 1987년 불가



여자 해머던지기 베티 하이들러 (독일)



여자 장대높이뛰기 엘레나 이신바예바 (러시아)

리아의 스테프카 코스타디노바가 세운 이후 24년간 요지부동인 세계기록(2미터09)을 경신한다. 블라시치는 작년 20개 대회에서 18회 정상에 오르며 세계체육기자연맹의 '올해의 여자선수'로도 뽑혔다.

블라시치의 아성에 도전하는 스베틀라나 스크라나(25·러시아)는 모델 같은 패션 감각을 선보이는 선수다. 경기에 나설 때도 반지 여러 개를 끼고, 목걸이, 팔찌까지 하고 나온다. 손톱엔 하늘색 매니큐어를 즐겨 바른다. 2010세계실내선수권, 2010유럽선수권, 2011유럽실내선수권에서 연속 4위를 하며 시상대에 서지 못하는 불운을 맛봤으나 이번 시즌 들어선 세계랭킹 3위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남자 110미터 허들 결승 | 8월 29일 오후 9:25

로블레스·올리버·류샹 '지상 최대의 삼파전'

남자 110미터허들에선 '지상 최대의 삼파전'이 펼쳐진다. 다이론 로블레스(25·쿠바), 데이비드 올리버(29·미국), 류샹(28·중국)이 숨막히는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로블레스는 현 세계기록(12초87·2008년 작성) 보유자. 올리버가 작년에 세운 개인 최고기록(12초89)은 역대 3위에 해당한다.

두 선수는 2008베이징올림픽 때도 격돌했다. 당시 절정의 기량을 뽐내던 로블레스가 12초93으로 금메달을 땀고, 새롭게 떠오르던 올리버는 13초18로 3위를 했다.

류샹은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그는 2004아테네올림픽에서 우

승하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 단거리 종목 챔피언에 올랐다. 2006년엔 12초88이라는 당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고, 2007오사카세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허들에서 올림픽, 세계선수권 우승과 세계기록을 모두 달성한 역대 유일한 선수다.

류샹은 농구 스타 야오밍과 함께 중국 스포츠의 영웅이었다.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유명세를 누렸다. 하지만 2008베이징올림픽 때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아파 기권하면서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침체가 이어졌다. '전성기가 끝났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는 작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13초09로 우승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여자 해머던지기 결승 | 9월 4일 오후 6:15

베티 하이들러, '마의 80미터' 넘을지에 관심

여자 해머던지기의 베티 하이들러(28·독일)는 대구에서 세계기록을 바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2007세계선수권 1위, 2009세계선수권 2위였던 하이들러는 5월 독일 할레 대회에서 여자선수로는 처음으로 79미터를 돌파하며 세계기록(79미터42)을 세웠다. 하이들러는 화보 촬영을 종종 할 만큼 곱상한 얼굴을 지녀 인기가 높다.

서구 선수로는 평범한 체격(키 1미터75, 몸무게 81킬로그램)이지만 빠른 회전 속도와 부드러운 무게중심 이동으로 최고 수준의 기량을 뽐냈다. 대구에선 하이들러가 마(魔)의 80미터를 넘기느냐에



남자 5천·1만미터 케네시사 베켈레 (에티오피아)



남자 400미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심이 쏠린다. 2년 전 베를린대회에서 하이들러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던 브뤼다르치과의 경쟁도 불거리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 | 8월 30일 오후 7:05

‘돌아온 여제’ 이신바예바… 복병 슈어 만만찮아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미녀 스타들도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29·러시아)가 돋보인다. 2004·2008 올림픽과 2005·2007 세계선수권을 석권한 이신바예바는 세계기록만 27번 세운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지존이다. 현 세계기록(5미터06)도 가지고 있다. 2009베를린세계선수권 땀 세 차례 모두 바를 넘는 데 실패하며 아무 기록 없이 대회를 끝냈다. 작년 도하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는 4위에 그치자 “너무 지쳤다”며 휴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시 폴을 잡은 이신바예바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대회에서 올해 세계랭킹 2위에 해당하는 4미터85(실내 기준)를 넘었다. 3월에 옛 스승 예브게니 트로피모프 코치와 5년 만에 힘을 합쳤다. 올해 실외 대회 개인 최고기록은 4미터76. 미국의 제니퍼 슈어(4미터91)엔 15센티미터가 뒤진다.

남자 1만미터 결승 | 8월 28일 오후 7:30

‘에티오피아 자존심’ 베켈레 독주 계속된다

케네시사 베켈레(29)와 티루네시 다바바(26)는 ‘장거리 왕국’ 에티오피

파의 자존심이다. 5천미터와 1만미터를 주종목으로 하는 베켈레는 2003년부터 네 번의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 다바바는 세계선수권 여자 5천미터와 1만미터에서 통산 금메달 4개를 따냈다.

사상 첫 남자 장애인선수 출전

피스토리우스·스미스, 장애를 넘어 새 도전

대구세계선수권엔 사상 처음으로 남자 장애인 선수 두 명이 출전한다.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로 불리는 남아공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5)와 ‘블라인드 러너(Blind Runner)’인 아일랜드의 제이슨 스미스(24)가 그 주인공이다.

두 다리에 J자 모양의 얇은 탄소섬유 의족을 착용하고 달리는 피스토리우스는 지난달 세계선수권 400미터 출전 자격을 따냈다. 시각장애인 스프린터 제이슨 스미스(24)의 100미터 개인 최고기록인 10초22는 현 한국기록(10초23·김국영)보다도 빠른 기록이다.

그는 8세 때 망막 신경 이상으로 시력이 손상되는 유전성 ‘스타가르트(Stargardt) 병’ 때문에 장애를 안았다. 시력은 보통사람의 10퍼센트 미만이다. 어려서부터 육상에 자질을 보여 입문 4년 만인 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100미터·200미터에서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G**

글·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조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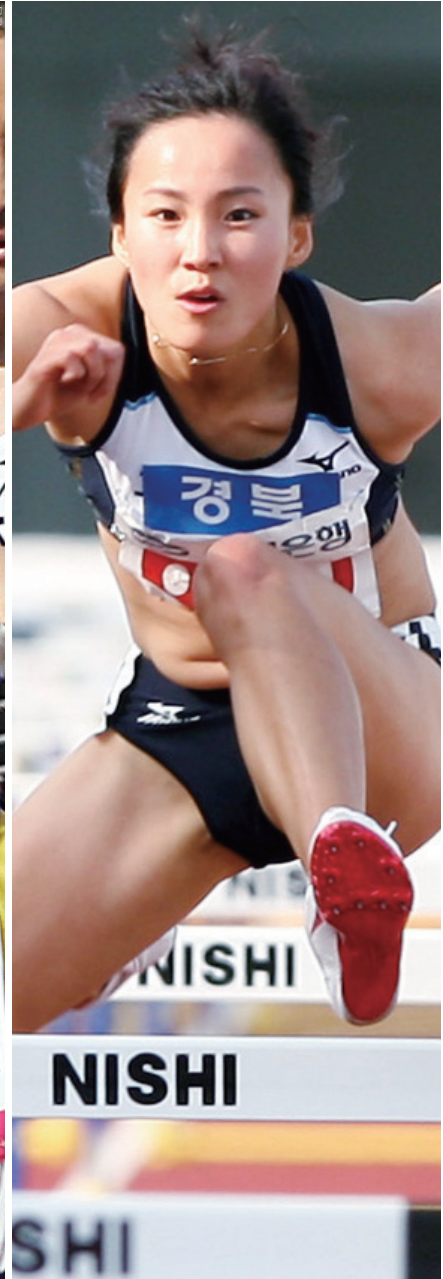
장대높이뛰기 최윤희 / 25, SH공사
키 1미터7기 / 몸무게 60킬로그램
최고기록 4미터40
2011년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1위

정혜림



마라톤 김성은 / 22, 삼성전자
키 1미터64 / 몸무게 47킬로그램
최고기록 2시간29분27
2010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5위, 국내 1위

김민정



100미터허들 정혜림 / 24, 구미시청
키 1미터68 / 몸무게 51킬로그램
최고기록 13초11
2011년 19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100미터허들 은메달

‘미모 못잡은 실력’ 최윤희·김성은·정혜림

한국신기록을 넘어 세계의 벽 두드린다

늘씬하고 긴 다리,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 육상선수들의 필요조건이다. 미인(美人)의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육상선수들 가운데는 미녀가 유독 많다. 엘레나 이신바예바(29·러시아)와 블랑카 블라시치(28·크로아티아), 다르야 클리시나(20·러시아) 등이 대표적인 미녀 선수들이다. 한국에도 이들 못지않은 미모와 실력을 갖춘 선수가 많다.

최윤희·‘알짹 장대높이뛰기 선수’

여자 필드서 ‘톱10’ 진입 유일한 기대주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가 바로 최윤희(25·SH공사)다. 출중한 실력과 미모를 동시에 갖춘 덕이다. 한국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간판스타인 최윤희는 이번 대회 여자 필드 종목에서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할 한국 선수로 꼽힌다.

최윤희가 두 달 전 작성한 한국기록(4미터40)은 2009년 제12회 대회 때 결선진출 컷라인이었던 4미터50(크리스티나 가드사에프)과 불과 10센티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한때 한국신기록을 17차례나 갈아치우며 장대높이뛰기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최윤희는 올 초만 해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08년 신인 임은지(22·구미시청)가 등장하면서 ‘2인자’에 머물렀던 까닭이다.

하지만 최윤희는 ‘인간새’ 세르게이 부브카(우크라이나)를 가르쳤던 아르카디 시크비라(우크라이나) 코치와 2010년 초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고, 기초부터 다시 다지며 몸에 밴 동작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

술한 땀방울은 숫자로 나타났다. 최윤희는 지난 6월 10일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무려 26개월 만에 4미터40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험난한 체력훈련 끝에 힘을 더욱 기른 최윤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더 단단한 장대를 들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장대가 단단해지면 선수가 받는 탄력이 커져 기록 향상에 유리하다.

김성은·‘마라톤의 꽃’

폴코스 두 번 만에 2시간30분 벽 돌파

여자마라톤의 김성은(22·삼성전자육상단)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육상은 이번 대회 목표를 10개 종목에서 10위권에 진입하는 이른바 ‘10-10 프로젝트’로 정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남자마라톤, 경보 등에서 선전을 기대하며 목표달성에 집중하고 있

다. 여자마라톤 역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변방 수준이지만 김성은의 존재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은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런던올림픽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성장한 선수다. 개인 최고기록은 2시간29분27초로 2시간25분 이내의 세계 정상권과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폴코스 도전 두 번 만에 2시간30분대 벽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임상규 삼성전자육상단 감독은 김성은 선수에 대해 “타고난 유연성으로 스피드가 뛰어나고 러닝자세가 안정적이다. 아직까지 잠재력이 많은 선수로 1~2년 안에 한국기록 경신은 물론, 세계정상권 성장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혜림·‘100미터허들 에이스’

12초대 진입, 국내 첫 결선진출이 목표

여자 100미터허들의 정혜림(24·구미시청)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정혜림은 이 종목 한국기록(13초00) 보유자인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연경(30·문경시청)에 가려 늘 2인자에 머물렀는데, 지난달 마침내 국내 1인자로 우뚝 섰다. 정혜림은 “12초대에 진입해 국내선수로는 최초로 종목 결선에서 뛰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한국 육상계가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 7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혜림은 이연경을 밀어내고 대회 출전자격을 따냈다. 구미시청 권순영 감독은 “기본적인 스피드에는 순간탄력이 좋아 허들을 넘을 때 체공시간을 줄이는 부분만 좀 더 가다듬는다면 좋은 기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2009년 베를린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미터허들 결선진출 한계 기록은 12초73. 정혜림의 최고기록보다 0.38초나 빠르다. 하지만 최근 정혜림의 기세라면 넘지 못할 기록은 아니다. **G**

글·온누리 (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에서는 마라톤과 경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대구스타디움 종목별 관전법과 최고의 관람석은

본부석 좌우가 명당... 리듬 맞춰 응원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은 국제공인 1등급 경기장이다. 하지만 경기장 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전태도다. 관전태도는 선수들의 당일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종목 특성에 맞는 박수와 응원법을 권한다. 또 경기장 특정 구역에서는 선수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훨씬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막과 함께 전 세계의 시선은 대구스타디움으로 향한다. 마라톤과 경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가 열리는 대구 수성구 대흥동의 대구스타디움은 6만6천4백22석을 갖춘 국제공인 1등급 경기장이다. 한일월드컵(2002년)과 대구세계 유니버시아드(2003년)를 비롯, 2005년부터 매년 열리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하지만 경기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전태도다. 관전태도는 선수들의 당일 경기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20여년 전만 해도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100미터달리기 금메달리스트인 칼 루이스는 자서전에서 “7만이 넘는 관중은 너무 시끄러웠다”며 “내가 경험한 모든 경기 가운데 한국 관중의 관전태도는 최악이었다”고 혹평한 바 있다.

대회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는 “유럽 관중은 선수들이 100미터 출발을 하기 직전에는 대화는커녕 기침도 억지로 참고 정숙을 지킨다”며 “서울 올림픽으로부터 세월이 20년 넘게 흐른 만큼 대구의 관중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단거리 선수는 소음에 민감... 단계별 예절 지켜야

실제 100미터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는 관전태도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선 경기장 내 아나운서가 트랙에 오른 출전 선수를 소개하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다. 대신 심판이 “제자리”라고 호명하는 순간 관중들은 박수를 멈추고 숨소리를 죽여야 한다. 일부 선수는 “차려” 할 때 관중석에서 나는 소리를 총소리

① 주요 경기별 명당 관람석



로 오인하기도 한다.

단거리의 경우 단 한 번의 부정출발도 치명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선수는 관중석에서 관객들이 내는 소음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대신 총소리가 울린 다음에는 “와” 하고 터지는 환호성과 함께 있는 힘껏 박수를 치면 된다. 1만미터 달리기 같은 중장거리 경기에서는 트랙을 도는 선수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 박수로 응원하면 된다.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는 선수들과 관객들이 경기장에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같은 도약 종목은 리듬에 맞춘 응원이 개개인의 기록경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일부 유명 선수는 직접 손짓과 몸짓을 사용해 자신의 리듬에 맞춰 관중들의 응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대개 경기전에는 침묵을 유지해 선수들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주고, 출발 직후에는 느린 박수와 빠른 박수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높이뛰기를 예로 들면, 도움닫기 전까지는 ‘ 짹~ 짹~ 짹~ ’ 하고 천천히 박수를 치다가 도움닫기에 들어가면 ‘ 짹~ 짹~ 짹~ ’ 하며 박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도움닫기가 필요한 멀리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장 내 음주와 고성방가도 절대 삼가야 한다. 지난 5월 대구 세계육상대회의 리허설 격으로 열린 대구국체육상경기대회 때는 일부 관중이 준비해 온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관중석을 술판으로 만

들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구세계육상대회 조직위 관람서비스팀의 관계자는 “관람석 내에 주류 반입과 경기장 내 음주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까지 볼 수 있는 명당 자리는 따로 있다. 주경기장의 본부석 좌우 자리는 100미터달리기와 허들 등 트랙경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100미터달리기를 비롯한 모든 트랙경기는 본부석에서 스타디움을 내려다보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시작한다. 자연히 입장료가 가장 비싼 VIP석은 모두 본부석 주위에 배치돼 있다.

출입문 기준으로는 주경기장 서쪽에 있는 VIP 출입문을 비롯해 1번과 2번, 11번과 12번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트랙경기를 가장 잘 관전할 수 있다. 특히 본부석에서 스타디움 방향 기준으로 왼쪽 관중석은 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총알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트랙을 박차고 달리는 모습을 가장 생생히 지켜볼 수 있다.

종목 따라 명당 조금씩 달라… 입장 출입구 잘 선택을

또 결승테이프를 끊는 선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본부석 우측 좌석도 자리 잡기가 힘들 전망이다. 100미터달리기를 포함한 모든 트랙경기는 본부석에서 스타디움을 내려다보는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끝난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도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진과 영상을 자국으로 내보내기 위해 대개 이 자리에 포진하게 된다.

한편 본부석 맞은편 전광판 아래서는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경기를 가장 잘 관람할 수 있다. 관중석에 ‘대구’라는 대형 영문 글자가 적힌 곳으로, 주경기장 동쪽의 장애인 출입문과 6번과 7번 출입문으로 입장하면 가장 가깝다.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의 동쪽 트랙 바깥에는 멀리뛰기와 세단뛰기를 위한 경기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창과 원반, 해머 등 던지기 경기는 본부석에서 스타디움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열린다. 본부석 우측 전광판 아래로, 경기장 남쪽의 9번과 10번 출입문이 던지기 경기를 잘 볼 수 있는 명당자리다. 반대로 본부석 왼쪽 3번과 4번 출입문 근처에서는 ‘미녀새’ 이신바예바의 장대높이뛰기 경기를 가장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G**

글·이동훈 기자

코스모스 피어있는... 대구순환 42.195Km

마라톤 경기 도심에서 출발·도착... 유럽 명품도시처럼 시내 재단장

마라톤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메달 획득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막일과 폐막일인 8월 27일(여자)과 9월 4일(남자) 각각 열리는 남녀 마라톤 경기는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 생중계된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대구시민들도 마라톤 경기시간에 맞춰 대구 시내 곳곳에서 거리응원에 나선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마라톤 경기에 출전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8월 12일 케냐에서 온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대구 시내 마라톤코스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꽃은 마라톤이다. 정진혁(건국대) 등 10명의 남녀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마라톤은 우리나라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우선 여자마라톤이 대구세계육상대회 개막일인 8월 27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꽃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남자마라톤은 폐막일인 오는 9월 4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42.195킬로미터의 마라톤 코스는 대구 중구 동인동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시작해 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범어네거리를 거쳐 동대구로~두산오거리~수성못~수성로~대구은행네거리~달구벌대로~반월당네거리~중앙로로 이어지는 순환형(루프) 노선으로 짜였다. 15킬로미터 코스를 크게 두 번 돌고, 나머지 12.195킬로미터를 전력질주하는 코스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8월 2일 마라톤 구간을 직접 둘러보며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는 세계 어느 도시의 마라톤 코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대중교통 지구인 중앙로는 유럽의 유명한 도시의 거리 못지않다”고 자평했다.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수성못 선착장도 볼거리

마라톤 코스는 대구의 얼굴이 된다. 대구시는 지난 3년간 1백억원을 들여 마라톤 구간의 가로수와 화단, 코스모스길을 단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구 시내 곳곳에 심어진 꽃만 모두 20만 본에 달한다.

마라톤 경기 출발점과 도착점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다. 세

계육상선수권 마라톤 경기의 출발과 도착은 대개 주 경기장에서 하기 마련.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의 중심이자 역사적 상징성까지 갖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선정했다. “도시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복안이다.

남북 구간인 동대구로와 수성로의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코스모스도 마라톤 경기의 또다른 볼거리다. 또 실개천이 흐르는 대충교통 전용지구인 중앙로에는 버스정류장이 대회 홍보물 형태로 꾸며져 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마라톤 경기 당일에는 수성못의 분수대도 시원한 물줄기를 하늘로 쏘아올린다. 대구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인 수성못 오리배 선착장도 말끔하게 재단장했다. 수성관광호텔 입구에서 수성오거리까지 이어지는 수성못길에는 원추리와 맥문동 등 1만6천 송이의 각종 꽃이 만발한다. 생활쓰레기로 어지럽던 수성못 일대 공터도 나무를 심어 새로 정비했다.

1만여명 거리응원… 도시 홍보 ‘일석이조’

마라토너들이 건널 동신교와 수성교 교량 구간에는 대회에 참가한 2백여 개국의 국기와 대회 홍보기가 펄럭이고 있다. 대구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이어지는 대구지하철 3호선 교각 밑에도 코스모스를 심었다. 마라토너들이 통과하게 될 두산오거리의 인공폭포도 시원한 폭포수를 토해낼 준비를 끝냈다.

마라톤 구간 주변 아파트와 주택에서는 펄럭이는 태극기의 물결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승용차와 버스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선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라톤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할 관객들은 마라톤 경기를 볼 지점을 고르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마라톤 코스가 대구 도심 구간을 3차례 도는 순환형으로 짜였기 때문이다.

대회 조직위는 마라톤 경기 당일 마라톤 코스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모여 마라토너들을 응원하는 ‘루프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 남녀 마라톤 경기 당일 74개 공연팀과 67개 응원팀 등 모두 1만여 명이 거리응원에 나설 예정이다. ‘루프 페스티벌’은 마라톤 출발시각보다 30분 앞선 오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이어진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마라톤코스



대회 조직위 문화행사팀의 임윤이씨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수성네거리, 황금네거리, 수성못 수성보트장, 중동네거리, 중앙로 등 지서 선수응원과 농악, 비보이, 전자현악, 아크로바틱쇼 등 문화공연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현장에 못 간다면 TV 생중계를 통해서도 TV 중계차의 지상중계에 대비해 불법 광고판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셔터와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광고전단도 제거했다. 또 도심 곳곳의 대형 건물에는 대형 걸개그림이 내걸렸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마라톤 코스를 둘러보고 도심 경관이 아주 깨끗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대회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도시 대구를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컨디션을 올려라... 막판 담금질 '후끈'

미국·자메이카 등 트레이닝 캠프서 전력노출 피하며 적응 훈련 구슬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7곳의 트레이닝 캠프가 운영된다. 선수촌 외에 별도로 현지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최적의 마무리 훈련을 통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트레이닝 캠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기장 바깥에서는 이미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경기 당일 선수의 컨디션이다. 기량이 아무리 출중해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차와 기후가 다른 곳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는 더더욱 그렇다. 철저한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선수촌을 운영한다. 경기장 가까운 곳에서 컨디션 조절을 해 최고의 기록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선수촌의 시설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수들이 꼭 선수촌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의 선수들은 별도로 마련된 트레이닝 캠프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한다. 선수들의 전력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트레이닝 캠프의 장점으로 꼽힌다. 경기가 열리는 대구를 비롯해 경산, 목포, 창원, 울산, 거창, 서귀포 등 모두 7곳에 트레이닝 캠프가 마련돼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태씨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요청에 따라 21곳의 트레이닝 캠프 후보지를 추천했는데 경기가 열리는 대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가 비슷하며 자국의 여건과 비슷한 곳 7곳이 최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선수촌 외에 7곳의 트레이닝 캠프가 운영된다. 경북 경산에 캠프를 차린 자메이카선수단이 막바지 훈련을 하는 모습. 오른쪽이 '인간 번개' 우사인 볼트.

선택됐다”며 “해외의 경우 종목별로 경기장이나 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육상훈련 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이나 양궁, 실내체육시설 등이 하나의 타운을 이루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국 중 선수단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대구시에 트레이닝 캠프를 차렸다. 후보지 중 경기장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낙점’의 이유다. 선수단 규모가 워낙 커서 트레이닝 캠프가 대구와 멀어지면 이동에 그만큼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적의 트레이닝 캠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준비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2백7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미국은 자타공인 최강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필드와 트랙 등 다양한 종목에 많은 우승후보가 포진해 있다. 남자 400미터의 케론 클레멘토, 남자 10종 경기의 윌터 디스, 여자 100미터의 카멜리나 지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대구… 북유럽 5개국은 목포에 짐 풀어

지난 13일 대구에 도착한 미국선수단의 스노 단장은 “이번이 세번째 한국 방문인데 올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이라며 “스태프들과 함께 본진 도착에 앞서 숙소와 훈련장, 이동 수단 등을 체크해서 우리 선수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는 트레이닝 캠프 가운데 대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5개국이 사용한다. 대구와 거리가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는 목포가 트레이닝 캠프로 선택된 데는 핀란드의 칼레비 창던지기 코치와의 인연이 적잖게 작용했다.

칼레비 코치는 2007년부터 한국 육상대표팀의 창던지기 코치로 한국과 연을 맺었다. 지난해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이곳에 좋은 인상을 받은 그는 고국에 목포를 적극 추천했다. 해산물 등 입에 맞는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데다 숙소로 사용할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신축시설이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목포시는 선수단에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대식 목포시 스포츠산업과 계장은 “인천-목포-대구로 이어지는 교통편의와 각종 소모품, 편의시설, 통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목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번개로 통하는 우사인 볼트가 소

주요 참가국 어디서 훈련하나 (괄호 안은 기간)



속된 자메이카선수단은 경산시에 트레이닝 캠프를 차렸다. 대구는 우사인 볼트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다. 지난해 5월 열린 제6회 대구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9초86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한 바 있다.

대구와 가깝고 기후 여건도 흡사하다는 점이 자메이카의 선택을 받은 이유다. 경산시는 경산육상경기장을 비롯한 시설과 전용 마사지실, 의료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수들에게 경산시의 특산물인 포도와 복숭아, 자두 등도 제공해 지역 홍보도 겸할 예정이다.

우사인 볼트의 자메이카는 경산에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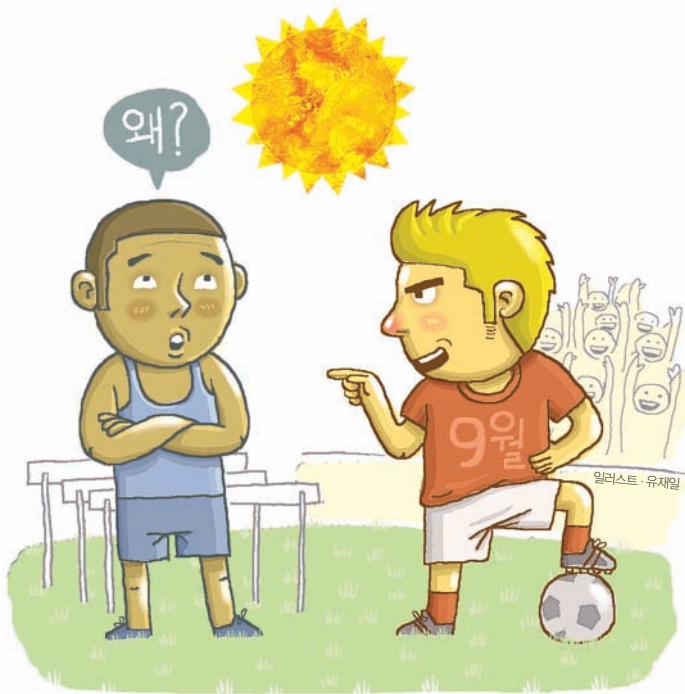
1백1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영국은 울산에 자리를 잡았다. 대구와 인접해 있는 데다 경기장, 숙박, 병원 등 관련 시설이 우수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울산시는 훈련시설과 장비, 숙박, 병원 등의 편의를 적극 지원해 울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캐나다는 경남 창원을 트레이닝 캠프로 선택했다. 지난해 5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창원을 직접 방문해 결정했다. 이동거리가 1시간 안팎으로 가깝고 편의 시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욱 창원시 체육진흥과 주무관은 “캐나다선수단이 묵을 풀만호텔은 1천 실이 넘는 창원시의 대표 호텔로 주변에 창원컨벤션센터와 시티세븐 아파트 등이 있어 뛰어난 편의시설을 자랑한다”며 “창원시는 훈련시설과 장비, 통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선수단에 최선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한여름에 대회? 치밀한 흥행전략의 산물

9월 중에 열면 유럽축구리그에 밀려… 추석 명절도 변수로



□ 2007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기록 흥작'으로 유명하다. 세계신기록이 단 하나도 작성되지 않은 21세기 최초의 대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원인 중 하나는 날씨였다. 최고 섭씨 36.9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으며 선수들의 에너지를 증발시켰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걱정 중 하나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방해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의 하나다. 대회가 열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지난해 대구시의 평균 기온은 31.8도에 달했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폭염이 최근 10년 평균인 2.4일보다 1.5일 많은 3.9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도대체 왜 한여름에 대회를 열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한여름에 개최된다. 지금까지 9차례의 대회가 8월에 시작해 8월에 끝났고 3차례는 이번처럼 8월 말

에 개막해 9월 초에 폐막했다.

이는 대회의 발상지인 유럽의 날씨가 이 무렵에 육상 경기하기가 좋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12차례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중 9차례가 유럽에서 개최됐다.

그렇다면 왜 비유럽 지역에서까지 8월 한여름을 고집하는 걸까. 여기에는 IAAF의 치밀한 흥행전략이 숨어 있다. 흥행을 방해하는 요인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중에서도 유럽의 프로축구리그는 화피대상 1호로 꼽힌다. 워낙에 인기스포츠여서 같은 시기에 경기를 열면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TV시청률이 떨어지고 중계권 판매에도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TV시청률·중계권 등 고려… 개·폐회식도 주말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축구리그는 8월 초·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막해 다음 달인 9월 중순께면 전 유럽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는 9월 중순 전에 대회를 마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는 얘기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의 추석도 변수가 됐다.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 12일이다. 추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대회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추석 이후까지 대회를 미룰 수는 없다. 추석 전에 일찌감치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흥행을 위한 상책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개막과 폐막을 주말에 하자는 IAAF의 요청이 더해졌다. 물론 흥행을 위해서다. 8월 마지막 토요일에 개막해 9월 첫 일요일에 폐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회 기간은 처서(8월 23일)와 백로(9월 8일) 사이여서 더위가 한결음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의 대기 불안정을 감안하면 열대야와 폭염이 나타날 공산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 측은 다양한 폭염 대비책을 마련했다. 실시간 날씨 모니터링은 기본이고 대회 일정도 낮시간대의 더위를 피해 조정했다. 경보와 마라톤 등 로드 레이스 경기에는 분무기를 설치해 선수들의 체온을 낮춰주고 코스 곳곳에 메디컬센터와 응급처치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우수한 취재 지원 시스템을 자랑한다. 사진은 지난 19일 개관한 국제방송센터(IBC)에서 관계자들이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

메인프레스센터 오픈... 취재경쟁 스타트

모든 미디어 시설 스타디움 안에 설치... 도보로 2분 안에 현장 도착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취재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천여 명의 취재기자과 사진기자, 2천여 명의 방송관계자 등 3천여 명의 취재진이 열린 취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또 다른 자랑거리 중 하나는 취재 지원 시설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랜 기간을 통해 이전 대회와 차별화된 프레스센터를 마련했다. 5백 석 규모의 메인프레스센터(MPC), 사진기자를 위한 1백70석 규모의 포토센터, 1만3천8백제곱미터 규모의 국제방송센터(IBC), 경기장 인근 곳곳에 설치한 SMC(Sub Media Centre)가 그것이다.

미디어 공간 전체에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망 구축

MPC와 IBC는 지난 19일에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린 야심작이다. 이 기간 동안 유수의 메이저 대회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대성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전 대회와 달리 모든 미디어 관련 시설을 스타디움 안에 설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취재 활동을 스

타디움 안에서 할 수 있다. 대구의 무더위에 노출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작업공간은 동선을 치밀하게 파악해 방송제작, 보도, 사진 등 업무 특성별로 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MPC와 IBC에서 도보로 2분 안에 경기장 취재석, 기자회견실, 공동취재구역에 도착할 수 있다.

IBC에는 각종 방송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하 1, 2층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조직위원회, 주관방송사의 사무실을 비롯해 주방송사의 주조정실, 아카이브룸 등 주요 제작시설과 개별 방송사의 사무실 등이 배치돼 있다. TV컴파운드에 있는 지상에는 중계차량구역, 방송 전력 공간, 중계 위성 구역 등이 자리한다.

MPC와 IBC는 폐막 다음 날인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조직위원회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6백명이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디움 바깥에는 4곳에 SMC가 포진해 있다. 미디어촌, 경북대학생회관, 선수촌, 엑스코 대구에 설치된 SMC는 스타디움 외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MPC에 굳이 가지 않아도 기사 작성과 송고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작업공간과 유무선 인터넷, 기자회견실을 갖추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더 빨리, 더 높게, 더 멀리...

8월 27일 여자마라톤 첫 스타트... 2천4백여 선수, 1백81개 메달 경쟁

▣ '더 빨리, 더 높게, 더 멀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이 달구벌 대구에 모였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8월 27일 여자마라톤을 시작으로 9일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다. 남자 24개, 여자 23개 등 47개 종목에 2천4백여 명의 선수들이 총 1백81개의 메달

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28일 벌어지는 남자 100미터 결승, 29일의 남자 110미터 허들, 30일의 여자 장대높이뛰기 등 많은 명승부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27일 여자마라톤 단체와 28일 남자 20킬로미터 경보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자 경기 결승 준결승 예선 여자 경기 결승 준결승 예선 (1) : 1라운드 진출 자격 예선 경기, 10종 : 남자 10종 혼성경기, 7종 : 여자 7종 혼성경기

8.27(토)

9:00	10:00	11:00	12:00	13:00
	100m 10종①	3000m 장애물 예선A	100m 자격예선(1)	800m 1라운드
				100m 자격예선(1)
		멀리뛰기 10종② A&B		
		장대높이뛰기 예선A&B		
	원반던지기 예선A	원반던지기 예선B		
			포환던지기 10종③ A&B	
	마라톤			
19:00	20:00	21:00	22:00	23:00
	400m 1라운드	10,000m 결승	100m 1라운드	400m 10종⑤
		멀리뛰기 예선 A&B		
	높이뛰기 10종④ A&B			
	해머던지기 예선A	해머던지기 예선B		
개 회 식				

8.28(일)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10m 허들 10종⑥	110m 허들 1라운드	1500m 1라운드	400m 1라운드	100m 1라운드		
	장대높이뛰기 예선A&B			장대높이뛰기 10종⑧ A&B		
	원반던지기 10종⑦ A	원반던지기 10종⑦ B				
	포환던지기 예선 A&B					
	20km 경보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800m 준결승	100m 준결승	400m 준결승	10,000m 결승	1500m 10종⑩
						100m 결승
		멀리뛰기 결승				
창던지기 10종⑨ A	창던지기 10종⑨ B		원반던지기 결승			

결승 8월 29일 오후 9시25분



류상



데이비드 올리버

8:00	9:00	10:00
	20km 경보	



7종 : 여자 7종 혼성경기

10:00	11:00	12:00	13:00
5000m 1라운드	200m 1라운드	800m 1라운드	4×400m 릴레이 1라운드
멀리뛰기 예선A&B			
높이뛰기 예선A&B			
창던지기 예선A	창던지기 예선B		
포환던지기 예선A&B			
19:00	20:00	21:00	22:00
200m 준결승	1500m 준결승		400m 허들 결승
세단뛰기 결승		3000m 장애물 결승	1500m 결승
400m 허들 결승			
높이뛰기 결승			
창던지기 예선A	창던지기 예선B		

10:00	11:00	12:00	13:00
110m 허들 1라운드	200m 1라운드	4×400m 릴레이 1라운드	
세단뛰기 예선A&B			
해머던지기 예선A		해머던지기 예선B	
19:00	20:00	21:00	22:00
800m 준결승	200m 준결승	5000m 결승	4×400m 릴레이 결승
멀리뛰기 결승		200m 결승	
창던지기 결승			
포환던지기 결승			

이 경기 놓치지 마세요! ③ | 여자 장대높이뛰기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의 부활 드라마가 펼쳐질까. 여자선수로는 유일하게 5미터 벽을 넘어 5미터06의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신바예바는 그동안 세계기록을 27회나 갈아치웠고, 올림픽 금메달을 두 개나 차지했다. 현재 예전의 명성엔 미치지 못하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제니퍼 슈어가 복병이다. 최근 시즌 4미터91을 넘었다. 2009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폴란드의 안나 로고브스카(2011시즌 4미터75)도 2연패를 노린다. 한국의 기대주 최윤희도 출전한다. **G**

결승 8월 30일 오후 7시5분




엘레나 이신바예바




최윤희

9.3(토)

8:00	9:00	10:00	11:00	12:00
50km 경보				
				
19:00	20:00	21:00	22:00	23:00
110m 허들 준결승	800m 휠체어 결승	400m 휠체어 결승	1500m 결승	200m 결승
			4x400m 릴레이 결승	100m 허들 결승
높이뛰기 결승				
창던지기 결승				

9.4(일)

9:00	10:00	11:00	12:00	13:00
마라톤				
				
18:00	19:00	20:00	21:00	22:00
4x100m 릴레이 1라운드	4x100m 릴레이 1라운드	5000m 결승	800m 결승	4x100m 릴레이 결승
세단뛰기 결승				
해머던지기 결승				



최근 팔공산 갯바위(오른쪽 사진)에 이어 대구 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을 둘러보는 '골목투어'가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들이 대구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를 따라가는 야경투어'에 참가해 계산성당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팔공산 올레길·골목투어 “대구로 오이소”

비슬산자연휴양림도 경기관람 겸한 늦은 여름휴가지로 안성맞춤

2011년은 '대구 방문의 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시는 경기 관람 외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팔공산 올레길부터 방짜유기박물관, 허브힐즈, 스파밸리 등 휴식과 재미, 역사가 있는 달구벌로 초대한다.

□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팔공산이다. 소원을 이뤄준다는 영험한 갯바위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갯바위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상으로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형상이라 갯바위로 불린다.

팔공산은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다. 등산이 부담스럽다면 2시간 안팎의 올레길 코스를 걸어봐도 좋을 것이다. 팔공산 올레길은 총 9개 코스다.

이 중 7코스와 8코스가 추천할 만하다. 두 코스는 팔공산의 대표적인 사찰 동화사와 부인사를 지나며 시원한 나무그늘과 계곡도 즐길 수 있다.

팔공산 주변으로는 대구방짜유기박물관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방짜유기 전문 박물관이다.

방짜유기는 솟쇠를 녹여 두드려 만든 솟그릇을 말한다.

이곳 박물관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가장 이봉주 선생이 평생 수집·제작한 방짜유기 작품 1천4백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지하철 탈출체험, 지진체험 등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아이들과 둘러보기에 좋다.

약전골목·야시골목 등 근대문화 발자취 물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재난체험은 등골을 서늘하게 하지만 안전 정보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어 유용하다. 체험은 2시간 정도 소요되며 2일 전까지 [인터넷\(safe119.daegu.go.kr\)](http://safe119.daegu.go.kr) 또는 전화(053-980-7777)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입장료는 무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대구시에는 곳곳에 특색 있는 골목길이 즐비하다. 동인동 짬갈비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등 다양한 먹자골목과 함께 감초 냄새 풍기는 약전골목, 화려한 패션상가가 늘 어선 야시골목 등 개성 있는 골목길이 넘쳐난다.

최근에는 근대문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골목투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중구 일대에는 곳곳에 역사 깊은 근대건축물이 남아 있어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KBS <1박2일>에 소개된 동산선교사 주택, 영남 최초의 고딕 양식 성당인 계산성당 등 1백년 된 근대건축물이 현대건축물 안에 스며들어 있다. 또한 독립정신이 깃든 90개 계단 '3·1만세운동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고택 등 우리 민족이 지켜낸 역사가 살아 숨 쉰다. 이상화 고택의 경우 대구 시민들이 '이상화 시집 한 권 갖기' 운동을 벌여 보존기금을 모아 지켜낸 집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골목투어는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다. 대구시 중구청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1코스 '달구벌 그때 그 시절'과 2코스 '근대문화의 발자취, 야경투어, 맛투어 등 4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중구청 홈페이지\(junggu.daegu.kr\)](http://junggu.daegu.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허브테마파크와 함께 숙박 가능한 워터파크도

아직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육상 경기 관람과 함께 근처 휴양림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에 자리한 비슬산자연휴양림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철 휴가지로 안성맞춤이다. 휴양림 내에는 통나무집, 콘도 등의 숙박시설과 함께 야영이 가능한 텐트장도 마련돼 있다.

대구 달성군 일대에는 다양한 휴양 시설이 많다. 사계절 허브향이 감도는 '허브힐즈'는 허브정원을 비롯해 동물원, 물개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에코테마파크다.

공원 내 '에코어드벤처'에서 목재구조물, 로프 등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친환경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타잔코스, 킹콩코스 등 6가지 체험코스가 있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숙박이 가능한 워터파크도 있다. '스파밸리'는 대구의 대표적인 워터파크로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8가지 색채의 파도풀, 2백 50미터에 달하는 유수풀, 26미터 스피드 슬라이드 등 각종 놀이시설과 함께 바데풀에서 온천욕도 즐길 수 있다. **G** 글·이재남 기자



대구 특별관광상품 중 하나인 '동화사 템플스테이'.

대구육상대회기간 특별관광상품

템플스테이·한방체험 등 5개 테마로 구성

대구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 국내외 관람객을 위한 특별관광상품을 선보인다. 템플스테이, 대구한방문화체험, 사격승마체험, 달구벌문화유적체험, 대구근대인물리더십테마기행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번 상품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회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매일 오전 9시(단, 템플스테이는 오후 4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앞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해 시내 곳곳을 테마별로 즐기는 1일 관광 프로그램이다.

우선 대구의 명산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에서 즐기는 템플스테이가 있다. '참 나를 찾아가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밤하늘 별빛 아래 명상, 다도예절 등을 체험하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1박을 하는 '스테이' 상품과 반나절 상품인 '라이프'가 있다.

대구한방문화체험은 다양한 한방 체험행사가 마련된 웰빙 프로그램이다. 족탕체험, 한방마사지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한방체험으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사격승마체험도 있다. 이 상품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승마를 즐기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사격장에서 클레이사격, 공기소총 사격 등을 경험하는 레저 프로그램이다.

달구벌문화유적체험은 대구 팔공산 일대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불로동고분군, 방짜유기박물관, 동화사 등을 둘러보고 대구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팔공산케이블카를 타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구근대인물리더십테마기행은 한국 근대화의 주역 인물을 탐구하는 이색 테마 여행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그가 공부했던 옛 대구사범학교 등 박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상품가격은 1인당 2만~7만원 선이며 출발 3일 전까지 주관여행사인 **엑스코투어**(053-428-4002)와 **텍스코**(053-746-8007) 등 2곳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엑스코투어 2011.excotour.co.kr

대구에도 맛집?... “당연히 있지예”

현지 블로거 9명이 추천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표 맛집’

□ 대구에서 활동하는 맛집 블로거 9명이 “전국은 물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맛집이 많다”며 ‘대구 대표 맛집’을 공동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대구를 찾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구’는 맛있는 도시라는 편견을 뒤집어엿겠다는 생각이다. 이들 블로거가 추천한 식당을 함께 다니며 맛보았다.



몽티기(생고기) 몽티기는 일종의 육회다. 전통 육회처럼 양념하지 않아 ‘생고기’라 부르기도 한다. 몽티기는 몽텅몽텅 불규칙하고 큼직하게 고기를 자르는 것이 특징이다. 몽티기 명가(名家)로 꼽히는 장원식당(대구 중

구 동인동1가 368, 053-427-4363)에 있다.

고기가 어찌나 차진지 접시를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식당 주인 장혜주씨는 “도축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싱싱한 고기라야 가능하지 시간이 흐를수록 고기에 물이 생겨서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몽티기는 성글게 빵은 고춧가루와 손으로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은 양념에 찍어 먹거나 살짝 재워 뒀다 먹는 게 정석이다. 1접시 2만8천원.

매운찜갈비 간장으로 양념하는 기존 갈비찜과 달리 대구 찜갈비는 매운 고춧가루와 다진마늘로 맛을 낸다. 매우면서도 달착지근한 맛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육질의 매운찜갈비는 중독성 있게 맛있어 술안주로도 인기가.



블로거들은 1972년 매운찜갈비를 처음 만들었다는 봉산찜갈비(대구 중구 동인1가 332-3(동인동 찜갈비골목), 053-425-4203)를 추천했다. 찜갈비 한우 2만5천원, 호주산 1만4천원. 자투리 갈빗살과 뼈를 넣고 진한 육개장처럼 끓인 ‘갈빗살찌개’(6천원)도 괜찮다.

봉산찜갈비 옆 유진찜갈비(대구 중구 동인1가 298-3, 053-425-7184)도 대구 블로거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돼지막창 대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안주. 보통 막창을 데쳐 동그란 단면이 보이도록 가로로 잘라 뒀다가 손님상에서 노릇하게 굽지만, 복주식당(대구 중구 남산동 911-5, 053-422-5821)은 세로로 길게 잘라 납작하게 펼쳐 양념해 둘 뿐 미리 데치지 않는다.



이렇게 준비해 둔 막창을 주머니 들어오면 주인이 숯불에 초벌구이 해 손님상에서 완전히 노릇하게 익혀 먹는다. 누린내가 거의 없고,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아주 좋다. 돼지막창 7천원, 소막창 1만2천원.



납작만두 납작만두는 별맛 없이 심심한데 희한하게 젓가락을 당기는 마력이 있다. 소는 당면 몇 가닥, 양념이라곤 간장과 고춧가루가 전부다. 블로거 ‘모모짱’ 전문양씨는 남산초등학교 맞은편 미성당(대구 중구 남산4동 104-13, 053-255-0742)이 원조라고 알려졌다. 1인분 3천원. 남문시장 안 남문납작만두(대구 중구 남산1동 605-10, 053-257-1440)도 괜찮다. **G** 글·김성윤 (조선일보 대중문화부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대구 맛집을 더 알고 싶으면 여기서!

대구 맛집 추천 블로거 명단

바람돌이 blog.naver.com/hikhi **굿뉴스** blog.naver.com/lamp5861 **깡지** blog.naver.com/this1074 **준팔근팔** blog.naver.com/pjh690325 **짱돌아빠** blog.naver.com/jaedolls **초춘** cjhdin.blog.me **맛난게조아** blog.daum.net/qwert6647 **액션매니아** psdrlyk.blog.me **모모짱** momozzang31.blog.me

또 하나의 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화려한 공연·쇼 “웃다 보니 하루해가...”

□ 대구와 인접한 경주에서 또 하나의 지구촌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8월 12일 개막한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풍성한 볼거리로 초반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해로 6화째를 맞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0월 10일까지 60일간 경주 엑스포공원과 경주 시내, 봉황대 등 경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천년의 이야기-사랑, 빛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로 47개국 이 참가해 각국의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천년의 이야기'라는 주제에 맞게 천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지혜로운 신라인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볼거리로 마련돼 있다. 먼저 주제공연 <플라잉>은 신라의 화랑 김유신이 화랑무술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넘어와 오합지졸 응원단 학생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무언어 퓨전무술극이다. 코믹한 스토리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입소문나면서 관람객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2차례(낮 12시, 오후 2시) 엑스포 문화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온 위원복(42)씨는 “대부분의 전시와 공연, 체험행사들이 신라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며 “주제공연 <플라잉>을 보는 한 시간 동안 신나게 웃었는데 온 가족이 보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대구육상대회와 연계해 입장료 20~30퍼센트 할인

영화배우가 실제 출연하는 실사(實寫)에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한 3D 입체영화 <벽루천>도 큰 인기다. <벽루천>은 천한 신분의 청년 '지귀'와 선덕여왕의 절절하고 몽환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침성 대영상관에서 1일 24회 상영되며 상영시간은 23분이다.

매일 밤 펼쳐지는 화려한 멀티미디어쇼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새긴 높이 82미터의 경주타워를 무대로 현란한 레이저쇼가 여름밤을 수놓는다. 이 밖에 세계민속인형전, 세계전통문화관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세계축페스티벌, 세계인형극축제 등의 공연을 통해 세계인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주말 저녁마다 세계 유명 뮤지션이 공연하는 세계뮤직페스티벌이 열려 더욱 흥겹다.



매일 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경주타워'를 배경으로 화려한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진다. 이 쇼를 보지 않고는 신라의 달밤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환상적이다.

입장권은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이다. 입장권 1장이면 엑스포의 공연·입체영화·경주타워 멀티미디어 쇼·전시 등을 추가 요금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특별할인 혜택도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티켓을 소지한 관객에게는 엑스포 입장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엑스포를 관람하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시 30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클·이제남 기자

문의·경주세계문화엑스포 cultureexpo.or.kr



대구세계육상 경보 국가대표팀이 지난 8월 12일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앞에서 코스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황영조 “코스는 쉽지만 알보진 말아라”

마라톤 같은 구간 반복에 선수는 스트레스 받지만 관중은 편하게 응원

2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평소 보기 힘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많은 선수가 모이는 만큼 볼거리도 많다. 육상은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익숙한 종목이 아니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한국 육상이 낳은 3명의 스타(황영조·장재근·이영선)들의 입을 통해 이번 대회를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과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 본다.

메달 기대하는 로드 레이스

무더위가 최대 변수… 기록보다 순위 경쟁을

한국은 육상 강국이 아니다. 세계선수권에서는 아직 단 1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다. 한국 육상은 안방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 목표 '10-10'을 공표했다. 10개 종목에서 10위 이내에 들겠다는 것.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마라톤과 경보가 포함된 로드 레이스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마라톤으로 시작해 마라톤으로 끝난다. 27일 오전 9시 여자가 스타트를 끊고, 9월 4일 남자가 대미를

장식한다. 대회 코스는 변형 루프코스(도돌이표 코스)다.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해 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반월당네거리를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오는 15km 구간을 두 바퀴 돌고, 같은 구간을 단축해 12.195km를 더 달려 순위를 가린다.

관중들로서는 한자리에서 선수들을 세 번이나 응원할 수 있다. 팬은 좋지만 선수들은 힘들다.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평탄한 것도



독이 될 수 있다. 황영조(사진)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경보 기술 위원장은 “쉬운 코스라도 알보면 안 된다. 선수들이 오버페이스를 범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더운 날씨도 변수다. 2007년 오사카 대회 때 마라톤은 ‘서바이벌 레이스’로 불렸다. 파니시 지점의 기온은 33도로 역대 최고였다. 참가자 85명 중 무려 28명이 중도 기권했다. 당시 한국은 박주영-김영춘-이명승 등이 완주를 한 덕분에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선수 중 가장 좋은 기록(2시간8분30초)을 보유한 지영준이 불참하지만 정진혁(최고기록 2시간9분28초)·김민(2시간13분11초·이상 건국대), 황준현(2시간10분43초·코오롱) 등 5명이 출전한다. 세계 정상권 기록과는 차이가 있지만 메달 획득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단체전은 더 기대할 만하다.

한국 육상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보도 메달 기대 종목이다. 남자 20킬로미터 경보 한국기록(1시간19분31초) 보유자 김현섭(26·삼성전자)은 세계기록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50킬로미터의 박철성(29·상무)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시선 집중 트랙 남자 100m

‘10초의 희열’...준비과정 지켜보면 재미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중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다. 볼트가 출전하는 남자 100미터는 육상의 꽃이라 불린다.

한국이 낳은 대표 스프린터 출신 장재근(사진)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는 “남자 100미터의 매력은 폭발적인 스피드다. 선수들이 100미터를 10초 안에 주파하는 것을 보면서 관중들은 자신이 낼 수 없는 스피드에 대해 대리만족을 느낀다. 10초는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 희열은 상당히 오래간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시간을 보지 말고 관심 있는 선수의 움직임에 유심히 볼 것”을 권했다. 그러면 10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다고. 몇 번의 보폭에 100미터를 주파하는지를 세면서 보는 것도 재밌게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장 이사는 “준비 기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7분 정도다. 6분50초가 준비, 나머지 10초가 경기다. 볼트처럼 액션이 좋은 선수의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움직임에 호응해 주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28년 전인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육상선수

권대회에 출전했던 장 이사는 “정말 감회가 새롭다. 당시 오랜 비행시간에 지쳐 예선에서 탈락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대구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다. 특히 대구스타디움에 깔린 푸른색의 몬드 트랙은 반발력이 좋아 마법의 양탄자로 불린다. 타이슨 게이가 부상으로 불참하는 게 아쉽지만 볼트와 아사다 파월의 경쟁이 상당히 볼 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선수 중에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린이 기대를 모은다. 한국 선수 가운데서는 한국기록 보유자(10초23)인 김국영이 결선진출에 도전한다.

과학적인 필드 투척 종목

날아가는 각도와 기록의 관계 비교를

자신의 신체만을 이용하는 다른 종목과 달리 투척 종목은 창, 포환, 원반, 해머 등 기구에 힘을 싣는다. 제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1998년 방콕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여자 창던지기 2연패를 달성한 이영선(사진) 투척 대표 상비군 코치는 “투척에서는 날아가는 각도도 중요하지만 힘과 스피드, 투척 순간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 즉 과학과 결합된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창은 31~33도, 포환은 36~41도 각도로 날아가는 게 이상적이다. 원반은 40도, 해머는 40~45도다.

이 코치는 “창 같은 경우 초고속 카메라로 리플레이를 해서 보면 살아 있는 생물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날아간다. 특히 실력이 좋은 외국 선수들이 각종 기구를 그렇게나 멀리 던지는 걸 보는 건 흔치 않은 기회다”라고 했다.

투척에는 종목 특성상 아무래도 덩치 큰 선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미국이나 유럽 선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 코치는 “그 가운데서 달려와 던져야 하는 창던지기 선수의 몸이 좀 가는 편이다. 해머와 포환에는 뚱뚱한 선수가 많은 데 비해 원반엔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의 선수가 많다”고 했다.

원반은 또 47개의 종목 중 여자 기록이 남자보다 앞선 유일한 종목이다. 여자 세계기록은 가브리엘 라인시가 세운 76미터80으로 남자 기록(74미터08·위르겐 쉘츠)보다 2미터73이나 앞선다. 이유는 원반 크기 차이다. 여자용 원반은 남자용보다 지름이 2센티미터 작고, 무게도 남자용의 절반에 불과하다. **G**

글·이현재 (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입상 피아니스트 손열음 “피아노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피아니스트 손열음(25). 그는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도전해 2위에 입상했다. 그는 열한 살 때 참가한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최연소 2위를 차지한 후 ‘천재’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미국·이탈리아·독일 등지에서 열린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연속으로 최연소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이를 증명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의 금호아트홀에서 손열음씨를 만났다.

□ 손열음씨는 자신을 ‘콘서트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한다. 잘하는 일이 연주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연주뿐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튀는 행동을 일삼거나 어린 나이의 성공을 믿고 제멋대로인 것도 아니다. 그는 “내 연주를 들어 준 고마운 팬들이 보내는 트윗에 일일이 댓글 인사를 하고 있다”며 해맑게 웃는다.

그는 전형적인 신동의 수순을 밟은 연주자다. 어릴 때 재능을 발견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는 스승도 만났다. 미국 오벌린 국제 콩쿠르(1999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1년),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쿠르(2002년)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며 타고난 재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참가하는 콩쿠르마다 대부분 최연소 1위로 입상하는 등 타고난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열다섯 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전형에 최연소로 합격해 김대진 교수를 사사했고, 6년 전부터는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서 아리에 바르디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4일 미국 연주를 마치고 독일 하노버의 집으로 돌아왔다.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이었다. 이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콩쿠르 경력을 더 쌓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서 또다시 콩쿠르를 준비하는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고 했다.

“사실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콩쿠르에 나간 것 같아요. 음악은 스포츠와 달라서 잘하고 못하고를 성적으로 매기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요. 콩쿠르로 뜬 연주자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콩쿠르 운은 없지만 대단한 내공을 가졌는지는 또 모르는 일거든요. 운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음악계에서 잘되려면 해야 할 복잡한 일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직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연주만 하며 차내려고요.”

한예종 최연소 합격… 신동의 수순 밟아

이번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상금은 적지 않다. 2천만원에 가까운 상금을 어디에 쓸까.

“제가 콩쿠르에서 상금을 많이 받아 봤지만 …,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러시아 은행에 제 계좌를 개설해 입금해 놓고 통장과 국제 현금카드를 주신 거예요. 보통 수표나 계좌로 보내 주거든요. 아무튼 엄마에게 드렸는데, 현금카드가 우리나라에서 읽히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러시아에 가야 하나요.(웃음)”

그는 ‘어머’ ‘으하하’ ‘완전 최고’라는 표현을 좋아했다. 무슨 질문을 던져도 재미있게 대답하고, 푹 부러지게 말도 잘했다. 그 나이 또래가 가진 생기발랄한 구석도 있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세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독일에서는 물보다 싼 맥주를 완전 사랑한다”는 식의 세상 철학도 뚜렷했다.

하지만 그는 피아노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주문을 외듯 연주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섬세한 표정을 때때로 바꾸며 음악과 함께 숨을 쉬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마치 피아노를 장난감삼아 가지고 노는 것 같다.

그는 객석을 압도하는 재주가 있다. 지난 6월 차이콥스키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그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맘을 뻘뻘 흘리면서 또 중얼



지난 6월 28일 차이콥스키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손열음.



김선아 기자

중얼거리면서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다. 당시 그의 연주를 보려고 온 1천여 명의 관객 전원으로부터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자신의 무대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행복해한다.

그는 지난 7월 첫째 주에 모스크바에서 귀국한 이후 올 연말까지 쉴 틈이 없다. 7월에는 부천필, 인천필, 대관령국제음악제 상주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8월에는 원주시청 연주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실내악 연주, 7인의 음악가들, 광복음악회,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 9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씨와 듀오 리사이틀, 독주회까지 매달 연주 일정이 빼곡하다. 매번 무대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을까.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올 연말까지 쉴 틈 없이 연주회로 꽉 차

그는 앞으로 해 보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바로 지휘다. 그는 “연주처럼 지휘를 전문적으로 배울 계획은 전혀 없다. 그것은 지휘를 전문적으로 배워 온 분들에게 무례한 일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몇 작품을 지휘할 수 있다면 가까이 해 보고 싶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여성 지휘자 중 성시연 선생님은 최고였어요.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가진 지휘자라도 지휘할 때 반드시 한 두 부분 엇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성시연 선생님과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3번도 매번 틀리는 부분이 있는 작품인데, 이번 연주에서는 말끔히 지나갔어요. 완벽한 지휘였어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성시연씨와 협연 무대를 마친 다음날, 원주 고향 집에서 휴식 중인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날 공연의 감동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다. 좋아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스물다섯, 젊은 피아니스트의 앞날은 분명 지금보다 더 환해질 것이다. **6**

글·정은주 (톱클래스 기자)

‘지우히메’ 아역으로 데뷔... 이젠 ‘신혜히메’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히트 이어 <넌 내게 반했어>도 해외방영 예약 줄이어

배우 박신혜는 요즘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한류스타 중 한 명이다. 최근 아이돌 그룹이 한류 열풍을 주도하면서 여배우들의 해외 진출이 주춤했다. 그러나 박신혜는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크게 히트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박신혜는 얼마 전 국내에서 종영한 <넌 내게 반했어>를 내세워 ‘포스트 최지우’ 시대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이진영

□ 일본에서 박신혜(21)는 ‘지우히메’를 잇는 ‘신혜히메’로 불린다. 하지만 정작 박신혜는 손사래부터 친다.

“한류스타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저보다는 <미남이시네요>(2009년 방영)라는 드라마 자체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매번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죠. 이런 게 나이를 먹는 건가 봐요.(웃음)”

박신혜는 최근 MBC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를 마쳤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밤늦게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신세를 졌다. 촬영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촬영장에 복귀했다가 재입원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연기를 재개한 박신혜는 촬영 현장에 물리치료를 대동했다. 자신의 촬영분량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며 묵묵히 순서를 기다렸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중에도 촬영장 지켜

“주연배우는 다치면 안 되는데 스스로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제 잘못이 커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많은 배우와 스태프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으면 몸은 고되도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넌 내게 반했어>는 이미 일본·대만·홍콩 등과 판권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 <미남이시네요>의 콧비였던 박신혜와 정용화가 함께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꽤 매력적인 작품으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박신혜는 당분간 건강을 추스른 후 <넌 내게 반했어>의 해외 프로모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실 박신혜는 데뷔 때부터 한류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권상우, 최지우 등을 한류스타로 발돋움하게 만든 드라마 <천국의 계단>(2003년 방영)에서 최지우의 아역으로 출연했다. 당시 박신혜의 나

요즘 아시아에서 한껏 매력 발산 중인 박신혜는 “최근 대만을 다녀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놀랐다”며 “데뷔 초에는 자기만족을 위해 연기했다면 이제는 제 연기를 보시는 모든 팬들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고작 13세. 이후 속편 격인 <천국의 나무>에서는 주연을 맡으며 또 한 차례 아시아 무대를 노크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박신혜는 '포스트 최지우'라는 묵직한 수식어를 안고 있다.

<넌 내게 반했어>에 앞서서 박신혜가 주연을 맡은 대만 드라마 <선풍관>이 현지에서 방송됐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현지에서 머물며 촬영한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전파를 타자마자 대만 전체 시청률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신혜는 지난 6월 대만으로 출국해 2박3일간 프로모션을 마치고 돌아오기도 했다.

“대만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셔서 놀랐어요. 또렷한 한국어로 제 이름을 부르고 환호해 주실 때마다 ‘쉽게 연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데뷔 초에는 자기만족을 위해 연기를 했다면 이제는 제 연기를 보시는 모든 팬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려 노력하죠.”

‘포스트 최지우’로 불리며 인기 급상승

<넌 내게 반했어>는 박신혜의 이러한 연기 투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극중 가야금 전공자 ‘이규원’을 연기한 박신혜는 촬영 전 한 달간 일주일에 3회씩 가야금 수업을 받았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혼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했다고 한다. 손가락에 잡힌 물집이 터지길 반복했지만 박신혜의 연습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의 손가락에는 굳은살과 상처가 남아 있다.

“가야금 선생님께서 굳은살이 잡힌 걸 보고 ‘제대로 배웠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물집이 터진 후에는 반창고를 붙였는데 자꾸 손가락의 감을 잊는 것 같아 반창고도 떼어 버렸어요. 물론 10년 넘게 공부한 전문가처럼 연주할 순 없지만 최대한 근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죠. 그게 제가 맡은 역할과 저를 바라봐 주시는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정용화와와의 ‘재회’도 즐거운 일이었다. <미남이시네요>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두 사람은 한층 물오른 연기로 완벽한 연기 호흡을 보여줬다. 방송 전에는 음악을 소재로 했다는 점과 또 박신혜와 정용화가 출연한다는 사실 때문에 ‘제2의 <미남이시네요>’가 아니냐



박신혜는 주연작 SBS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아시아 각지에서 대히트하며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사진은 <미남이시네요>에서 인기 아이돌그룹의 보컬을 연기한 박신혜(사진 왼쪽 두번째).

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박신혜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나온다는 것 외에는 <미남이시네요>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말처럼 방송 시작과 함께 <미남이시네요>와 비교하는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넌 내게 반했어>의 이규원만 있을 뿐, <미남이시네요>의 ‘고미남’은 온데 간데없었다.

해외방영 앞두고 팬들의 방문요청 이어져

“대본을 읽을 때 (<미남이시네요>)와 비슷하다고 느꼈다면 저도 출연을 결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다른 이야기였죠. 고미남이 주변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물이었다면 <넌 내게 반했어>의 규원은 더욱 당차고 씩씩해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도 알죠. 실제 제 모습과도 더 비슷해서 연기하기 한결 수월했어요.”

실 틈 없는 연기 활동을 이어 온 박신혜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 <넌 내게 반했어>의 국내 방영은 끝났지만 박신혜를 찾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린다. 해외 방영을 앞두고 박신혜의 방문을 원하는 해외팬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조금 쉬려 해요. 제 몸을 잘 다스려야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까요? 하지만 오래 쉴 것 같지는 않아요.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 하하.” **G** 글·안진용 (스포츠한국 엔터테인먼트팀 기자)

‘제2의 스타벅스’ 꿈꾸는 조성훈 이온씨드 대표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을 해야 성공하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경영학,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교에서 디자인 경영학(석사)을 공부한 조성훈 대표는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경영 분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직접 이온씨드라는 브랜드 개발 회사를 차렸다. 그는 브랜드 경영, 디자인 경영, 그리고 지적 자산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조성훈 대표는

토론토대학교 경제경영학과 졸업
HSE(헬싱키경제대학교) 국제디자인경영 EMBA 졸업
SADI 삼성디자인학교 제품디자인 06~07 수료

□ 다른 젊은이들의 창업 성공사례들을 접하면서 “나도 창업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G20세대가 많아졌다.

사실 성공적인 창업은 간단하지 않다. 특별한 아이템과 열정 외에도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밖에 없는 상태로 시작하여 전체적인 경영 구도를 이룩하기 위해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끈기가 있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통해 비전을 공유해야 하며,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발전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꿈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G20세대가 있다. 바로 제2의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 개발을 꿈꾸는 이온씨드(AEONSEED Inc.)의 조성훈(31)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경영학과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교에서 디자인 경영(석사)을 공부한 조성훈 대표는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경영 분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직접 이온씨드라는 브랜드 개발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랜드 개발이나 디자인 경영이라는 개념이 아직 한국에선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면 주로 제품이나 로고 디자인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개발 과정에는 아이템 개발 및 디자인, 메인 타겟 지정, 로케이션 선택, 가격 책정 및 지적 자산 개발 등 여러 가지 작업이 포함됩니다.

국내 회사들은 브랜드 기획 없이 디자인만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랜드 컨설팅 수요도 많지 않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온씨드는 현재의 브랜드 컨설팅보다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 개발,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온씨드라는 단어는 생소한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온씨드(AEONSEED)의 ‘AEON’은 라틴어로 ‘영원’이라는 뜻이

고, 'SEED'는 '씨앗' 또는 '씨앗을 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온씨의 미션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We seed a Vision'이라는 슬로건에도 '비전을 심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론칭한 비스켓은 어떤 개념의 브랜드입니까?

"비스켓은 건강과 함께 직접 음료를 만드는 재미(Customization)를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음료 브랜드입니다. 매장을 찾은 손님이 직접 비스켓이라는 작은 바구니에 자기가 원하는 과일, 야채 등을 골라 담아 카운터에 제출하면, 1백퍼센트 천연 건강음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나만의 음료'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스마트폰을 통해 각 천연 재료의 칼로리와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정보까지 자신이 만든 음료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스켓의 철자가 Biscuit이 아니라 Beesket이네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 꽃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꿀을 담은 '벌(Bee)'과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Basket)'라는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및 제품 인테리어도 모두 벌집을 콘셉트로 만들었습니다."

8월에 1호점이 문을 열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10호점까지 개설한 후에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및 북미시장으로도 진출할 생각입니다."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직원을 모집하면서 많은 젊은이가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하길 바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을 함께 세워 키워나갈 도전적인 인재를 찾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 중 한 명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도중하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본을 유치할 때에도, 벤처캐피탈이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다. 정부 지원도 기준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경우 받기가 어려웠습다."

결국 아버지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혁신적인 CEO들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후배 G20세대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비스켓 로고(사진 위). 손님이 원하는 과일을 이 비스켓 바구니(아래)에 담아 카운터에 갖다주면,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준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어하는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무조건 안정성만 따지고 대기업을 바라보기보다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저 같은 경우 20대에 중소기업에서 품질경영, 전략기획, 디자인기획, 특허전략, 해외영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하면서 내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시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휘자'의 책임과 그의 리더십이 단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이 경험은 후에 한 기업의 지휘자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몰라도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시점에 오기까지 접해 본 여러 분야는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일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재미를 찾게 되고, 깊게 들어가면 나만의 전문성이 생기게 됩니다. 고로 부딪혀 즐기다 보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G

글·박지현 (하버드대 경제학부)

‘육상 꿈나무’ 포환던지기 이미나 선수 “2년 뒤 세계육상대회 금메달은 내것”

‘육상 꿈나무’ 이미나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포환던지기를 시작해 매년 부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모가 모두 중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운동한다”고 말한다. 이미나 선수는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6년 연속 포환던지기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미나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터뷰하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 “포환던지기의 매력이에요? 순간의 힘과 집중력으로 멀리 던졌을 때 그 희열감이랄까요. 아왕 시작한 거 세계대회에서 1등 한번 해 보겠습니다.”

8월 4일 오전 9시,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 속 익산공설운동장. 포환던지기 이미나(17·아라공고1) 선수의 당찬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이미나 선수는 초·중·고 부별 기록을 여섯 차례나 경신하며, 이제껏 한번도 1등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는 한국 포환던지기계의 기대주다. 지난 7월 6~11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에서 4위를 기록했다.

포환던지기는 육상의 네가지 투척 종목 중 상대적으로 관성이나 원심력의 도움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포환을 턱 아래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밀어내듯 던지는데, 지름 2.135미터(7피트)의 원 안에서 가장 멀리 보내면 승자가 된다. 남성은 7.26킬로그램, 여자는 4킬로그램의 포환을 사용한다.

지난 7월 세계청소년대회 4위 ‘괴력 소녀’

현재 포환던지기 선수는 전국 통틀어 1백명이 채 안 된다. 이 중 여자 고등부는 20여 명 정도다. 이미나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체

육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 테스트를 받으면서 발을 들여놓았다.

초등학교 때 처음 나간 경기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마나 선수는 여자 초등부 포환던지기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3~4미터나 멀리 날려 보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 때문에 그는 '괴력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를 지도해 온 최권엽 코치는 "포환던지기 종목에 적합한 큰 키 등 타고난 체격조건을 갖춘 이마나 선수는 국내 대회에서는 그를 따라올 선수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최 코치는 "마나는 열정과 집념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에 열린 세계대회에서 그가 보인 역량과 기량은 우리나라도 세계대회에서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함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운동해요”

이마나 선수의 어머니는 2003년부터 파킨슨병을 앓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 왔다. 아버지도 2009년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전신으로 전이돼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포털 '다음'과 공동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해 이마나 선수를 비롯한 육상 꿈나무 20명을 위한 장학금 2천만원을 마련했다.

이마나 선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며 "시합 나갈 때마다 항상 '최고다.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의 격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도 슬럼프는 있었다. "날씨가 춥고 더울 때 또래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는 훈련받기가 싫어져요. 특히 부상을 당할 때는 외로움까지 찾아오니 더 그렇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 오히려 저는 그 기간을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이마나 선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신체조건이나 힘이 부족한 친구들을 생각하면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면서 "아, 나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럴 시간이 없구나.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운동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지난달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를 꼽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한국 포환계의 기대주, 이마나 선수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 내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경기가 끝났고,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1등과 50센티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에 세계 1위를 향한 목표가 더 확고해졌어요."

“세계 1등과 50센티미터 차이… 충분히 극복 가능”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는 고등부라서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고 했다.

"아직은 포환던지기가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종목도 있느냐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도 알릴 수 있고,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할 거예요. 그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터뷰하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G**

글과 사진·박이슬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서울 금호동 다세대주택 Y하우스의 외관. 붉은 벽돌이나 화강암을 쓰는 대신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북쪽면)와 컬러 강판으로 벽면을 마감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 규모) 47㎡, 1백15제곱미터(33평·중층) 2가구로 구성돼 있다. 주차장 오른쪽 끝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평상이 놓여 있다(오른쪽 사진).

디자인을 입힌 다세대주택의 ‘변신’

서울 금호동 Y하우스 “같은 건축비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전국 어느 도시든 동네 골목의 다세대주택은 붉은 벽돌로 마감한 외관부터 내부 공간까지 천편일률적이다. 돈 적게 들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같은 공사비를 들여도 과연 이게 최선일까. 과연 경제적인 것일까.

Q 젊은 건축가 부부가 설계한 다세대주택 하나가 건축의 고정 관념에 질문을 던졌다. 와이즈건축(www.wisearchitecture.com)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건축가 전숙희·장영철씨가 서울 금호동 2가 언덕에 지은 ‘Y하우스’(2010년 4월 완공)다.

Y하우스의 외관은 단순하고 깔끔하다. 주변의 어지러운 풍경을 가라앉히고 싶다는 속내가 읽힌다. 창 배치도 규격화와는 거리가 멀다. 바깥 골목에서 보면 마음 내키는 대로 크기와 위치를 낸 듯하다. 1층의 주차 공간 옆에는 아주 작지만 화초가 자라는 작은 텃밭이 있고,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평상도 놓여 있다. 눈에 크게 띄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연히 그 자리에 놓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세대주택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숨돌릴 공간을 주고 싶다는 바람, 안에 사는 사람이 창을 통해 빛을 들일 뿐만 아니라 바깥의 풍경들과 교감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담아 정교하게 배치한 것

들이다.

그러나 Y하우스를 제대로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다세대에도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두 개 층을 터놓은 중층(로프트·LOFT) 스튜디오가 눈에 띈다. 도심 오피스텔의 숨막히는 듯한 로프트와 판이하게 다르다. 두 개 층을 제대로 터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층고가 높다.

그런데도 Y하우스는 어느 다세대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돈이 더 들지 않았다고 한다. 공사비 평당 3백50만원, 최대 용적률도 확보했다. 젊은 건축가의 ‘무한 도전’이었다. 최근 두 사람은 ‘젊은 건축가상’(문화체육관광부, 새건축사협의회)을 수상했다. “관점을 바꾸면 또 다른 건축이 가능하



전숙희



장영철



두개 층을 터놓은 Y하우스 중층의 내부 모습. 실내가 훨씬 넓어 보인다.

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심사위원장 김인철)라는 찬사를 받았다.

Y하우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전씨와 장씨는 “디자인을 통해 숨어 있던 공간을 찾고,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만드는 게 건축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세대주택을 지으며 건축가를 찾는 일은 드물다.

“Y하우스 건축주도 처음엔 일명 ‘허가방’(부동산 관련 인허가 전문 대행업소, 저렴한 비용에 설계도 겸한다)에 의뢰해 도면을 받아 우리에게 검토를 의뢰해 왔다. 그것을 보니 새롭게, 다르게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설계를 맡아 보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서민들에게 ‘디자인은 비싼 것’이라는 통념도 없지 않다. 어떻게 설득했나.

“조건을 걸었다. 평균적인 시공비에 원안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찾아 내겠다고 했다. 이 목표를 이뤘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나.

“발상을 바꾸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평수, 즉 바닥면적에만 집착한다. 공간을 2차원, 즉 평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경제적인 공간이란, 단순한 바닥면적의 합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를 말한다. 똑같이 10평짜리여도 가치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공간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은 2차원의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예컨대

Y하우스의 창 크기는 골목길과 바깥 풍경을 최대한 배려해 배치된 것이다. 특히 안에서 보았을 때, 로프트의 큰 창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옆으로 길게 난 골목길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것을 볼 수 있다. 훨씬 깊고 풍부한 공간감을 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세대에 로프트가 특이하다.

“4가구는 남향으로 층층이 배치하고, 북쪽에 2개의 로프트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북쪽은 흔히 ‘버리는 공간’이 되기 십상인데, 천장이 높고 확실한 특징점을 가진 로프트가 이곳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됐다.”

그러나 선례가 많지 않은 실험적 디자인을 건축주가 선포 받아 들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주택은 일종의 ‘절충형’으로 지어졌다. 두 개의 로프트를 제외하고, 남향으로는 기존의 다세대 구조대로 각 층에 한 가구씩 층층이 배치한 것이다. 남향으로 층층이 네 가구, 북향으로 두 층마다 한 가구 등 총 여섯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건축가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축가가 옆에 없으면 주위에 수소문해서라도 건축가를 만나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건축가들이야말로 집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으로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다. **G** 글·이은주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 사진·와이즈건축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산책하다 보면 상쾌한 숲향이 가슴 속 깊이 스며든다.

태안 안면도

늦여름이 반가운 해수욕장 박속낙지탕 · 꽃게장도 손짓

아직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면 태안 안면도는 어떨지. 여름 성수기가 지난 안면도는 한결 험령해진 모습이다. 안면도 명소 꽃지해수욕장 외엔 대개 여유롭게 여름 바다를 즐길 수 있다. 태안의 별미 박속낙지탕과 꽃게장은 여행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하늘도, 바다도, 모래사장도 붉게 물들이는 꽃지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일몰.

□ ‘안면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꽃지해수욕장의 일몰이다. ‘꽃지 낙조’는 전북 부안군 채석강,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낙조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일몰로 꼽힌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펼쳐진 해변에는 오후 7시 즈음이면 노을을 즐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꽃지라는 이름은 ‘꽃이 많이 피는 곳’이라는 뜻. 한자로는 화지(花地)라고 한다.

꽃지해수욕장 일몰의 하이라이트는 붉은 햇덩이가 할미, 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질 때다. 커다란 해가 온 세상을 삼킬 듯 붉게 물들이며 두 바위 사이로 사라지는 장면은 아름답다 못해 장엄하기까지 하다. 노을은 하늘도, 바다도, 모래사장도 붉게 물들이고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물들인다.

할미바위에는 전설도 깃들여 있다. 신라 때 장보고의 부하장수로 안면도를 지키던 승언이 갑자기 북방으로 발령이 나 떠나게 됐는데 그의 부인 미도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 할미바위가 됐다는 것이다. 꽃지는 해변이 드넓어서 어디에서나 낙조를 볼 수 있지만 가장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은 안면도 꽃박람회 때 만든 꽃다리 위다.

섬 따라 곳곳에 숨어 있는 해수욕장·적송숲

안면도는 해수욕장 천국이다. 서쪽의 해안도로를 따라 기지포, 밧개, 삼봉, 장삼, 장돌, 셋별, 두여, 안면 등 10여 개의 해수욕장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그중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삼봉해수욕장과 백사장해수욕장, 안면해수욕장 등이다.

삼봉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오른쪽에 3개의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이름 붙었다. 모래와 해수가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모래밭의 길이가 1.2킬로미터에 달하는 백사장해수욕장은 단체 여행객들이 좋아한다. 송림과 함께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어 족구나 배구, 비치발리볼 등 간단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면해수욕장은 드넓은 풍광을 자랑한다. 단단하고 부드러운 모래밭은 동해의 어느 바닷가에 온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안면도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런 해수욕장이 몇 곳 있다. ‘바람아래’ 역시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시끄럽고 바가지가 난무하는 상혼 따위는 찾을 수 없다.

안면도휴양림 즐기고 태안에선 오토캠핑을

바다에 한가로이 뜬 어선들과 부드러운 날갯짓으로 하늘을 가르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여유롭다. 동해 못지않은 푸른 물결과 이름 없는 아름다운 섬들을 볼 수 있다. 물이 빠지면 백사장을 S자로 가로지르며 생기는 물길도 장관을 이룬다. 연인 혹은 가족과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가볼 만하다.

안면도 북쪽에는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꾸지나뭇잎으로 누예를 치던 외진 해변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해수욕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위에 걷기 좋은 솔숲길도 만들어져 있다. 꾸지나무골 주변에 자리한 방주골, 사목, 구름포 등도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해변이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몽산포오토캠핑장.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진 몽산포해변. 물이 빠지면 조개잡이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쌀썩은 여’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해수욕장도 있다. 조선 말엽, 당시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쌀을 운반하던 감독관이 쌀을 빼돌리다 쌀이 몇 섬 남아 있지 않은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감독관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암초에 배를 부딪쳐 침몰시켰고, 그 후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해변 건너편 외도는 한때 해적의 본거지였다고 한다.

바다를 즐겼다면 이제는 숲을 즐길 차례다. 안면도에 갔다면 소나무숲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안면도 전체 산림의 75퍼센트 이상은 소나무다. 섬 소나무숲으로는 드물게 해송(곰솔)이 아닌 육송(적송)이다. 안면송은 결이 곧고 비틀림이 적어 고려시대부터 궁궐용이나 선박 건조용 목재로 사용돼 왔다.

안면도 소나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안면도 휴양림이다. 높이 20미터를 웃도는 수령 1백년 안팎의 꺾다리 소나무들이 키 자랑을 하고 들어서 있다. 소나무 군락 뒤편으로는 숲 속의 집들이 가지런

하게 들어서 있다. 휴양림과 함께 수목원도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태안의 여름 별미는 박숙낙지탕이다. 생선과 조개 등으로 만든 맑은 육수에 박숙과 감자 등속을 함께 넣어 끓이다 산낙지를 넣고 조금 더 끓이는데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캠핑장 앞은 몽산포해수욕장·뒤편은 솔밭

태안에는 몽산포오토캠핑장이 있다. 태안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오토캠핑장이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서해안에서 오토캠핑을 즐기기에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캠핑장 앞으로 몽산포해수욕장이 펼쳐진다. 고운 모래가 가득 펼쳐진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진다. 해변 뒤편으로 20만 평에 가까운 광활한 솔밭이 펼쳐진다. 사이트는 숲속에 꾸릴 수 있다. 아름답리



안면도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 박속낙지탕(사진 위), 해미읍성. 조선시대 성벽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소나무가 바닷바람을 막아준다. 시설도 꽤 괜찮은 편이다. 캠프장 가운데 샤워장 겸 화장실이 있다. 취사장과 급수시설도 넉넉하다. 전기 사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편이다.

태안에서 나오는 길에 서산에 들러 개심사와 해미읍성을 돌아보는 것도 여행을 풍성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개심사는 백제가 망하기(660년) 불과 6년 전인 의자왕 14년(654년)에 창건되었으니 말 그대로 천년 고찰이다. 일주문에는 상왕산 개심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문을 들어서면 널찍한 오솔길이 여행자를 맞아준다.

해미읍성은 개심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왜구의 빈번한 침략을 막기 위해 1417년 축조 사업이 시작돼 세종 3년인 1421년 완성됐다. 성벽의 높이는 4.9미터, 성의 둘레는 약 1.5킬로미터다. 이순신 장군이 서른다섯 살 때(1579년) 이 성에서 중8품 훈련원 봉사로 열달간 근무했다고 한다. 조선 초기의 성채 특징을 잘 보여준다. **6**

글과 사진·최갑수 (시인·여행작가)

여행 정보

가는 길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를 빠져나오자마자 고가 밑에서 좌회전해서 1분 정도 달리면 왼쪽으로 안면도 가는 새 길이 나온다. 천수만 방조제를 거쳐 곧바로 안면도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도로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꽃지해수욕장에서 5분 거리다. 이정표가 잘 정비돼 있어 찾기 쉽다.

대중교통 태안버스터미널~꽃지(버스요금 3천8백원)

잠잘 곳 안면도에는 괜찮은 펜션이 참 많다. **해랑펜션**(041-673-1008)은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전용 해안도 갖췄다. **나문재**(041-672-7635)는 산책로가 인상적인 펜션이다. 황도에서 가까운 **씨언션**(041-672-5100)은 단체 여행객들에게 알맞은 곳이다. 워크숍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면자연휴양림**(041-674-5019)에 있는 '숲속의 집'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nmyonhuyang.go.kr)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먹을 곳 박속낙지탕은 **삼거리한우식당**(041-672-4540)이 잘 알려져 있다. **오뚜기수산**(041-675-0726)의 우럭죽국과 안면도 **안흥꽃게집**(041-673-0513)의 꽃게장도 별미다.

근육·경락·관절 풀어 찌뿌듯한 몸에 활력을

□ 계속되는 비와 무더위에 심신이 지친 요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건강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허약해진 몸에 우울한 마음까지 겹치게 되면 질병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몸을 개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태극권은 기본적으로 대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우리 몸을 시원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간략한 수련과 몇 가지 동작의 되풀이만으로도 달라지는 활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중 온몸의 힘을 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작들을 익혀 보자.

근육과 경락을 풀어 느슨히 하고 관절을 열어 주는 동작들을 통해 온몸이 부드러워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교감신경의 활동을 감소시켜 기력의 소모를 줄이게 된다. 움직임을 통한 깊은 휴식의 경지인 셈이다. G

송신법, 편안해지는 몸을 경험하자

몸을 느슨하게 한다는 뜻의 송신법은 태극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다. 온몸의 힘을 빼고 중력과 관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행하는 동작은 마치 느티나무 가지가 늘어지듯 온몸을 축 늘어뜨린 느낌을 가져야 하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듯 체중이 실린 양 다리가 땅속으로 폭 빠져드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1 발을 어깨너비만큼 11자로 벌려 딛고 양팔을 어깨높이로 든다. 양 무릎은 조금 구부려 앉는다.

2 중심을 오른쪽 발로 옮기면서 허리를 왼쪽으로 돌릴 때 오른손은 몸 앞쪽 밑으로 큰 원을 그리며 내려온다. 이때 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중력에 손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3 다시 양팔을 들어올리면서 사진①처럼 되게 한 후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체중은 왼발에 싣고 팔을 축 늘어뜨리며 원을 그린다.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50~1백회 되풀이한다.



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인 이찬 선생이 누구나 쉽게 태극권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CD가 함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동아E&D 펴냄·1만4천5백원

호랑이가 가지개를 커트 온몸을 풀어 주자

스트레칭은 늘 개운한 효과를 준다. 태극권 건신2단급 중 6단은 호랑이가 가지개 켜는 동작을 응용한 것이다. 쪽 뺨는 동작으로 등골을 부드럽게 만들고 팔을 털어 주는 동작을 통해 관절을 느슨하게 풀어 준다.



1 단전 앞에서 손을 깎지 끼고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들어올려 가슴 앞에 오게 한다.



2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돌린 뒤 숨을 내쉬며 두 팔을 앞으로 내뻗는다. 등골과 턱을 눌러 호랑이가 된 기분을 느껴 보자. 그 다음엔 역으로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6회 되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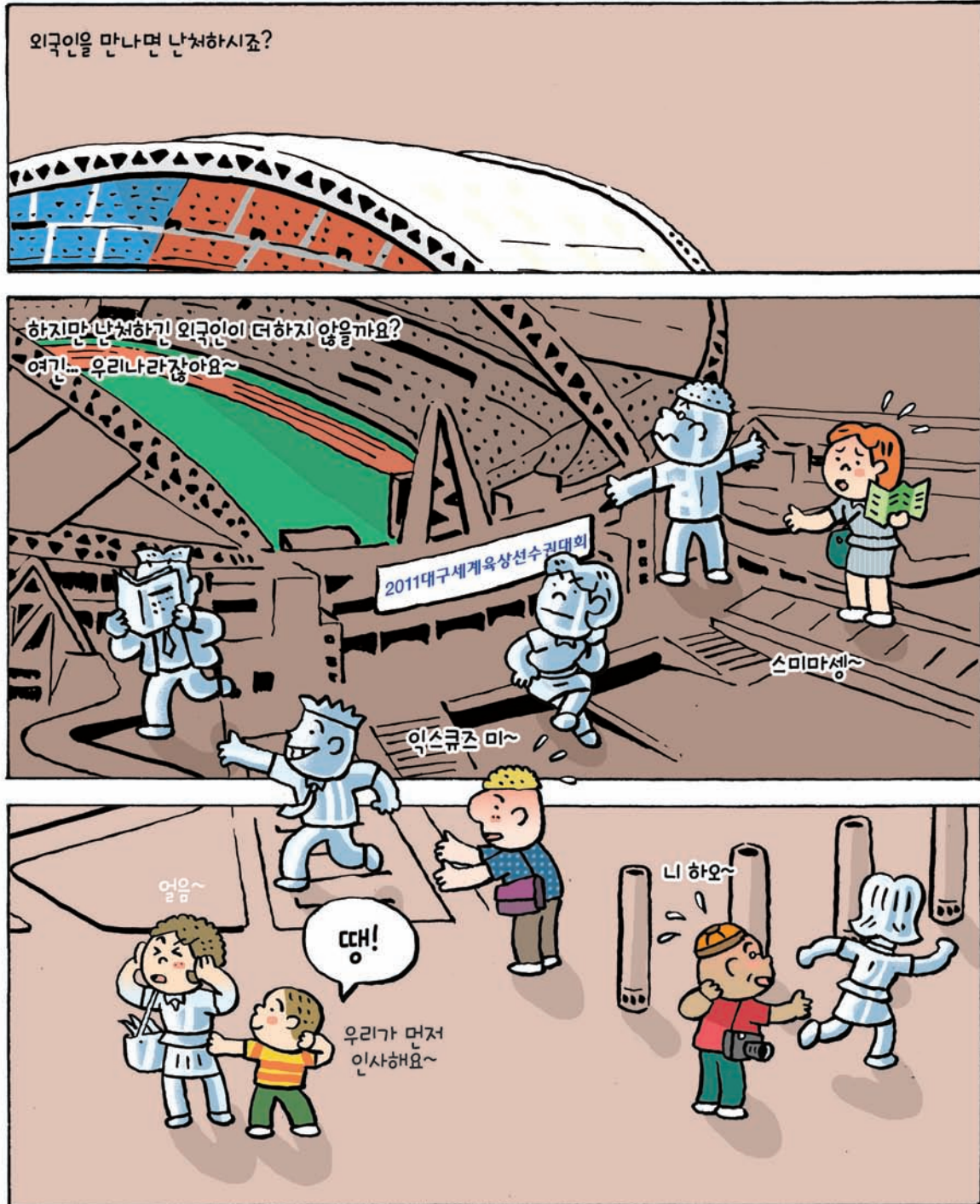
3 이제 6단의 2식이 이어지는데, 앞의 동작 중 사진②처럼 뻗은 상태에서 등골을 곧추세운다.



4 그 상태에서 손을 풀어 주며 자연스럽게 몸통 뒤로 돌려 양손 끝이 마주 닿을 때까지 떨어뜨린다. 힘을 완전히 빼고 중력에 맡겨 손끝을 부딪힌 뒤, 앞으로 들어올렸다 다시 뒤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4회 되풀이한다.

얼음 '땡'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최고의 손님맞이는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춘추전국의 영웅들〉(全3권) 리더십을 다시 생각한다



신동준 지음
한길사 펴냄 · 각권 1만3천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이르는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는 주(周)나라 시절 3백여 개에 달하던 봉건제후국들이 내분과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7웅(雄)으로 정리되고, 다시 진(秦)제국에 의해 통일되는 난세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협객·책사·요녀가 등장해 야망과 음모, 충성과 배신, 욕정으로 어우러진 거대한 드라마를 연출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또 유가(儒家)·법가(法家)·도가(道家) 등 중국 사상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한마디로 '중국사상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 춘추전국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춘추좌

전〉〈국어〉〈사기〉〈자치통감〉〈논어〉〈맹자〉 등 춘추전국시대와 관련된 고전의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 대표적인 인물 16명의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때문에 〈동주열국지(東周列國志)〉류의 책들이 대개 서주(西周)의 마지막 왕인 유왕(幽王)과 포사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최초의 패자(霸者)가 될 뻔했던 정 장공(鄭 莊公)으로부터 시작한다. 1권에서는 제 환공(齊 桓公) 등 춘추시대의 패자들을, 2권에서는 관중 등 춘추시대의 명재상들을, 3권에서는 진시황 등 천하통일을 위해 매진한 군주들을 다룬다.

나라 부강·백성 평안케 한 인물에 높은 점수

저자는 유교적 선악의 잣대에서 벗어나, 권모술수에 능하거나 윤리적 하자가 있는 위정자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이면 높은 점수를 준다. 이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정 장공부터가 유가에서는 불효를 이유로 폄하해 온 인물이다.

〈동주열국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일화들에 대해서도 저자는 여러 고전을 대비해 가면서 그 사건의 실재 여부를 면밀하게 따진다. 이 때문에 순자나 한비자 등의 주장을 원용해 왕도나 패도에 대한 유가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여러 고전을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를 고증하는 대목에서는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저자는 "오성홍기가 전 세계에 펄럭이고 있는 지금,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춘추전국시대의 정치사상〉으로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자와 천하를 논하다〉〈제자백가, 사상을 논하다〉 등 30여 권의 저서가 있다. **G**

글·배진영 기자

새로 나온 책

과학자들이 밝힌 행복의 비밀 50

김형자 지음 | 푸른지식 펴냄 | 1만5천원



당신은 언제,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는가? 사랑할 때, 남을 용서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남을 위해 기부할 때, 공부할 때... 과학칼럼니스트인 저자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행복은 먼 데 있지 않고, 바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이영관 지음 | 상상출판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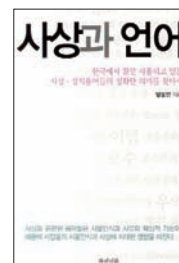


휴가나 휴일은 콘크리트 숲과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들은 답답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관광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행복과 감동을 충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22곳을 소개한다. 지리산 청학동, 우도와 마라도 등 유명한 곳에서부터 동해안 최북단 마을 명파리까지 시원한 화보와 함께 알려준다.

사상과 언어

양동안 지음 | 북앤피플 펴냄 | 1만5천원



공자는 정명(正名), 즉 '이름의 뜻과 실체가 같도록 바로잡는 것'을 정치의 요체라고 했다. 하지만 언어가 갖는 한계, 지식인의 나태, 정치적인 술책 등으로 인해 '정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와 이념, 좌익과 우익, 보수

와 진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중주의 등 정치·사회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그 의미가 곧잘 오용(誤用)·왜곡되는 단어들의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쌍무지개가 준 행운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큼 젊고, 자신의 회의만큼 늙는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만큼 젊고, 자신의 절망만큼 늙는다. - 버니 시겔(미국 의학자)



뮤지컬 **친정엄마**

세상의 모든 딸과 엄마를 위한 뮤지컬 <친정엄마>가 유니버설 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강통치마에 무명 저고리를 입고 참외·수박 서리에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망아지 같은 처녀 김봉란(엄마)이 세월이 흘러 딸 시집 보낼 준비를 하면서 겪는 해프닝과 갈등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매 공연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 나문희와 거침없는 전라도 사투리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김수미와 연기파 배우 이유리가 참여하여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시 9월 6일~10월 3일 **장소** 유니버설 아트센터 **관람료**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1588-1407

클래식 **유키 구라모토 가을콘서트**

서정적인 선율로 한국인의 정서를 사로잡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가을콘서트가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5월 발매한 베스트 앨범 <로맨싱 스트링스 : 엔솔로지> 수록곡과 7월 막을 내린 일본 창작 뮤지컬 <폭풍의 언덕>에서 작곡을 담당해 화제를 모았던 테마곡 '단 하나의 사랑(The Only Love)'을 비롯해 가을에 어울리는 유키 구라모토만의 로맨틱시즘과 리리시즘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보인다.

일시 9월 17~18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1577-5266



전시 **대구서 <카쉬 인물 사진전>**

20세기 역사적 인물의 진면목과 마주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사진의 거장, 유섭 카쉬(Yousuf Karsh, 1908~2002) 사진전>이 한국 관객과 만난다. 전시작들은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카쉬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빈티지 필름으로 소개된다. 전시화는 인물사진, 손, 풍경 등 세 주제로 구성된다. 오드리 헵번, 윈스턴 처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쟁쟁한 20세기 유명인사들의 오리지널 인물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9월 30일까지 **장소**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아트 갤러리 **관람료** 성인 8천원 학생 6천원 유아 5천원 **문의** 1566-1360



생명사랑 밤길걷기대회에서는 걷기대회 코스 길가에 '라이프 메시지'를 적은 봉투에 발광체를 담아 전시한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자살은 절대로 안돼요”

<생명사랑 밤길걷기>

한국생명전화는 WHO에서 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을 맞아 <2011 생명사랑 밤길걷기, 해질녘서 동틀 때까지>를 개최한다.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은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고자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밤길을 걷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걷기 대회를 비롯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적어 길가에 전시하는 '라이프 메시지', 입관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계기를 주는 '임종체험', 한일 자살자 유가족과 함께 걷는 '소중한 동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은 1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청계천을 거쳐 시청으로 돌아오는 코스(총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34킬로미터)로 진행된다. 대회의 첫 날인 26일에는 참가자 집결 및 출발과 당일 밤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폐회행사가 열리고, 27일 새벽 34킬로미터 도착 및 폐회행사가 열린다. 참가 후원금은 전액 자살예방 활동으로 사용된다. **G**

일시 8월 26~27일 **장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참가비** 5, 10킬로미터 :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34킬로미터 : 3만원 **문의** 02-745-9080

육상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대구에 볼거리 많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 대구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들이 준비된다. 대구의 전통자수박물관 '박물관 수 (繡)'에서 9월 17일까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특별전 - 태극·무궁화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태극 문양과 무궁화꽃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외국인에게는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극·무궁화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 20여 종을 볼 수 있다.

대구 수성아트피아는 9월 22일까지 <권정호·전수천·강익중 - 시간의 한마당>을 연다. 국내외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작가 3인이 '세계인들의 삶의 시간'이라는 명제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번 대회의 의의에 맞춰 그들만의 세계관으로 작품을 연출한다.

그 밖에 대구육상경기대회 도심문화행사로 9월 3일까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대구근대역사관, 대구 도심거리 일대에서 <2011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개최돼 다양한 공연들을 펼친다. 9월 3일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폐막식 전야음악회로 <임형주 여름콘서트 'Once More'>가 열린다. 6

글·김선영 인턴기자

태극·무궁화전 문의 053-744-5500 시간의 한마당 문의 053-668-1800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문의 053-427-4312 임형주 여름콘서트 'Once More' 문의 1588-4430



권정호, 전수천, 강익중 세 작가는 그들만의 세계관과 창작방법을 통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의의에 맞춰 작품을 연출한다. 사진은 강익중 作-달항아리.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9월 3~4일	1566-5490
드로잉쇼 히어로	명보아트홀 다운홀	9월 30일까지	02-766-7848
뮤직 오브더 나잇 지킬&팬텀	대구 계명아트센터	9월 7일	053-762-0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잠실 롯데월드 예술극장	9월 30일까지	02-2266-3727
연극			
서울탱고 Kiss & Money	명동 해치홀	9월 11일까지	070-8650-6217
프렌즈	극장아시조	10월 20일까지	02-742-7611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목포문화예술회관(갯바위)	9월 17~18일	061-270-8488
맥베드	포항시립중앙아트홀공연장	8월 24일 ~ 9월 8일	054-270-5483
콘서트			
윤수일밴드 전국투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9월 17일	070-8851-8001
비비킴 전국투어콘서트 Soul together	KBS 부산홀	8월 28일	070-7864-2580
장혜진 전국투어 콘서트 그여자	영남대천마아트센터 그랜드 홀	9월 17일	1566-1360
클래식			
정명훈과 함께하는 7인의 음악인들	대구수성아트피아 용지홀	9월 4일	1599-1980
양상불 디토 리사이틀	경기도 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9월 8일	031-230-3440~2
오페라/무용			
창작오페라 선덕여왕	동구문화체육회관	8월 28일	053-662-3083

8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8월 7일~8월 13일

곡명	가수
1 So Cool	씨스타
2 UGLY	2NE1
3 Mr. Simple	슈퍼주니어
4 You Are So Beautiful	김준수
5 Good-bye Baby	miss A
6 사람, 사랑	김범수, 박정현
7 찹쌀떡	센치한 하하
8 Hate You	2NE1
9 Grand Final (Feat.정인&MC 날유)	리쌍
10 내꺼하자	인피니트

애국영웅의 탄생 전쟁의 기억 되살려 만세! 스트레스 해소

영웅은 타고나거나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게 통념이었다면 정반대의 가설, 즉 영웅은 노력해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가설이 존재한다. 전시(戰時)에 특히 국가가 필요에 의해 영웅을 급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영웅을 사회주의권에서는 노력영웅·노동영웅·인민영웅 등으로 부르고 자유주의권에서는 “애국영웅”이라고 부른다.

물론 모든 애국영웅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을 국가에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사에는 전공(戰功)으로 승진도 빨리 된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는 경우는 국가가 영웅을 억지로 만드는 관점이다. 말하자면 프로파간다(정치 지도자·정당 등에 대한 허위·과장된 선전). 선동을 위해 일방적인 여론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영웅이 탄생한 경우다.

미국의 슈퍼 액션 히어로들은 대부분 만화를 통해 등장하는데 그중 미국의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영웅상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다. 캡틴 아메리카 만화 시리즈 중 첫 번째인 〈퍼스트 어벤저〉를 보면 캡틴은 1940년대 2차 대전 당시 테어나 독일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며 미국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슈퍼 액션 히어로들은 만화를 통해 등장

이 영화의 주인공 스미스는 본래부터 영웅은 아니었다. 그는 애국심이 열렬한 청년이었으나 신체조건이 왜소하고 근육이 빈약한 약골이어서 모병검사에서 항상 떨어졌다. 미국은 그런 그를 영웅골격으로 재탄생시킨다. 이 부분은 만화적인 설정으로 〈올버린 : 엑스맨의 탄생〉 같은 영화에서 이미 보여 준 것인데 독일에서 넘어온 박사에 의해 인조인간이 급조된다. 이 설정의 원조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실에서 태어난 인조인간 슈퍼맨은 더 이상 인간 스미스가 아니라 슈퍼 히어로이다. 미국 정부는 그를 모델로 하여 전시 프로파

다중을 선동하기 위해 영웅이 탄생하기도 한다. 특히 전사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영웅을 급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슈퍼 액션 히어로들은 대부분 만화를 통해 등장하는데 그중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영웅상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다.

간다를 만든다. 이때 붙여진 이름이 캡틴 아메리카다. 슈퍼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애국주의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대목이다. 영화적 관점은 그러한 ‘애국주의 만들기’를 일방적으로 찬양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풍자적으로 보여 주면서 정부는 항상 정치적으로 민간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웅에는 반드시 숙적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레드 스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역사를 초월해 있다. 히틀러의 부하지만 히틀러마저도 부정하고 전 세계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미디어 속에서 미국의 반독 감정은 이미 청산됐다.

미국이 더 이상 독일을 혐오하는 것은 글로벌한 멤버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다. 역사적으로 이미 관정이 난 인물들에 대한 비판만이 유효할 뿐이다. 히틀러, 히틀러, 괴벨스 등은 풍자의 대상이 되지만 독일군 전체에 대한 무자비한 모독은 이제 거의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에서도 미군이 잔인하게 해치우는 대상은 독일군이 아니라 히틀러에서 이탈한 레드 스컬의 부대들, 소위 악마의 잔당들이다. 그들의 구호는 “하일, 히드라!”, “하일 히틀레!”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혼동을 한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미국 관객들은 마음속으로 독일군에 대한 억압된 감정을 발산한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드러내기 어렵지만 영화 속에서 우회적으로 교묘하게 보여 준다면 한국 관객들이 얼마나 즐거워할 것인가. 애국주의 영웅영화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국민적 감정을 숙적에게 쏟아붓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6

글·정재형(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평창의 감동을 제주에서 다시 한번!

- 문자 투표 : ☎ 001-1588-7715로 제주 전송
 - 전화 투표 : ☎ 001-1588-7715 → 1번 → 7715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 문자 전화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계정수 만큼 가능.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D-100일

투표 마감일이 10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민은 3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제주도** 차례입니다.
대한민국과 제주 천년의 미래를 위해 지금 투표에 참여합시다.
2011년 11월 11일을 제주 역사를 새로 쓰는 날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200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1 세계7대자연경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나무 한 그루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특권이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공정사회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윤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고속성장으로 빈부격차, 결과중심주의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나눔실현으로 웅창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